



[산업] 청년 실업 中企 구인난 해소 팔 걷은 SK하이닉스 04



Economy

코스피	2240.80 (-18.11)	코스닥	761.18 (-0.76)
금리 (우대세 0%)	2.06 (0.00)	환율 (원/달러)	1130.10 (+2.20) (16일)

文 대통령, 30일 300여 공공기관장 소집

채용 투명화·경영 혁신 등 공기관 개혁 '채찍질'

중앙정부 산하 공기관 대상 취임후 첫 CEO 워크숍 주재 공공기관 혁신 2단계 발표 등 文 직접 나서 개혁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30일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워크숍을 주재하고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30일 중앙정부 산하 300여개 공공기관장들을 한 곳에 '집합' 시킨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주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극대화, 채용 투명화, 경영 혁신, 보수 및 관리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개혁에 더욱 채찍질을 가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공공기관 혁신 2단계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이달 30일 열린다. 다만 장소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3차 남북정상회담이 8월내에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

데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도 불투명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9월 초순 이후 열릴 것으로 유력해지면서 워크숍은 계획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처음 열렸던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째를 맞이하고, 공공기관장 물갈이도 거의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부문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불거진 채용비리 문제를 보고받고 대노한 바 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나서 만연해 있는 채용비리를 들춰냈고, 후속조치도 곧바로 이어졌다. 직후 문 대통령은 전 부처 장관들을 모아놓고는 "채용 비리 만큼은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후속조치를 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들

이 채용비리 등에 연루될 경우 공무원과 같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혁신대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특히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지를 밝히는 등 상당한 공을 들이기도 했다.

공공부문등 비정규직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0만1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극대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달성 ▲호봉제 전면 폐지 및 직무급제 도입 ▲분야별 기능 조정 ▲관리체계 개편 ▲주무부처 참여·권한 확대 및 규제·간섭 최소화 등의 정책을 내놓거나 계획하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규모가 큰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 등 총 338곳에 이른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와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과 2018년 3월 일부 유가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메트로경제가 미래 언론의 주역이 될 젊은 인재들을 찾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중산층, 국가경제에 기여를 하는 기업들을 위해 경제 위주의 기사를 발굴해 온라인, 모바일, 지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6년 역사의 메트로경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취재기자 (수습)
-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취재 역량평가 3차 : 면접(블라인드 방식)
- 모집인원 : 0명
- 응시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도 응시가능) <공통사항> ①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 본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이메일 접수자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① 기간 : 2018년 8월 10(금)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6시까지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8월 20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췌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년 8월 24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 (전화 02-721-9826)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성장률 감소 초래



경제성장 위축

소득주도 성장 '실패' 평가 하반기 혁신정책 내세워 신산업 육성·일자리 도모

'J노믹스'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1년간 펼친 정책들은 분배차원이란 모호했지만 성장차원에선 낙제점이었다는 것.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며 앞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요인으로 떠올랐다. 분배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접근이었다.

전문가들은 투자와 기술개발, 감세 등 성장정책을 따로 가져가는 가운데 분배정책 측면에서 소득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vs 미국, 정책의 차이가 성장격차 벌러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이미

<정부 13개 혁신성장 동력 부문>

/과기정통부, 이베스트투자증권

지능화 인프라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빅데이터 개방·활용	5G, IoT 사용화	AI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이동체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레벨3 자율주행	공공용·산업용 무인기 보급		
융합 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감상증강현실
개인맞춤 정밀의료	도시문제 저감	개별산업과 VR·AR 융합	의료·안전용 서비스 로봇
산업 기반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Si용 반도체 개발	항공부품, 자동차 경량화	후보물질 100개 개발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여두워지기 시작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의 경우 2.8%에서 2.7%로 낮아졌고, 2020년은 2.7%에서 2.55%까지 낮아졌다. 올해 성장률을 2.9%라고 가정하면 매년 0.2%포인트씩의 성장률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살아나는가 싶었던 산업생산은 하락세로 전환했고, 설비투자도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인프라투자 축소는 결국 급격한 투자감소로 이어졌고, 경제성장률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정부지출은 늘었지만 복지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이달 들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무역분쟁 등 대

외 요인도 있지만 실업률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금융연구원은 "개별소비세 감면과 아동 수당 도입 등의 정책이 소비 심리를 지탱하겠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특히 향후 1~2년내 경기하강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의 상황은 정반대다.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9%,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8%였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2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지만 성장률은 지난 2분기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고, 올해는 3%를 웃돌아 한국을 추월할 전망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최광혁이코

노믹스트는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다"며 "미국은 감세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증가시켰고, 한국은 인프라투자 축소, 증세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은 2분기 소비증가로 이어졌고, 하반기는 인프라투자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혁신성장이 국내 경제 선발투수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세우며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성장의 축으로 내세웠다.

경기침체와 회복의 갈림길에서 이제 남은 대안은 혁신성장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달 기획재정부 내놓은 '하반기 정책방향' 발표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경제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2면에 계속>

/안성미 기자 smahn@

'알렉사' - '코타나' 뭉친다 아마존·MS, AI 비서 통합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양사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비서 기능을 통합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양사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인 '알렉사'와 '코타나'가 올해 말까지 상대 플랫폼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과 MS는 앞서 1년 전부터 통합합의를 했으며 지난 5월 코타나-알렉사 통합 플랫폼을 시연한 바 있다. 이런 알렉사와 코타나의 기능 통합은 경쟁자인 애플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와의 경쟁

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이다. <관련기사 3면> 두 인공지능 기능이 통합되면 MS 코타나를 가진 사용자도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주문할 수 있다.

음성 지시를 통해 배송 추적, 추가 주문, 반송, 환불 같은 다양한 명령어도 실행할 수 있다. 반대로 아마존 알렉사가 탑재된 에코 스피커 사용자는 MS 코타나를 불러내 PC 캘린더를 정리하고 이메일에 답신을 할 수 있다. 코타나를 통해 윈도우 10 PC에 접속할 수도 있다.

아마존과 MS는 일단 베타 버전을 내놓아 사용자 반응을 관찰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계속 뛰는 호가... 추가 규제 비웃는 서울 집값

정부 합동점검반 불시단속에도
지난주 서울 집값 0.12% 올라
비투기지역 등 전역 상승곡선

과열지역 매물 귀해 부르는 게 값
하반기엔 1억 이상 더 오를 듯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사진은 마포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지역. /채신화 기자

“또 2000만원 올랐어요. 지금 안 들어 가면 나중에 후회해요.”

공휴일인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잠실주공5단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합동 단속을 벌인 지 이틀 뒤였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 정부 단속에 문자·전화 영업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는 서울 곳곳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해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고공행진을 지속

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동안 서울 집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달 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통합개발,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인 직후부터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2% 올라 6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개발 기대감에 휩싸인 여의도는 물론 용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비투기지역인 은

평·관악·중구·금천·성북·동작 등도 아파트 값이 올랐다. 사실상 서울시내 전역이 상승 곡선을 타는 모양새다.

이에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단은 지난 7일 용산구 신계동 ‘e편한세상’ 등 주요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며 다운계약 등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13일에 강남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 5단지 일대 공인중개업소를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앞으로도 서울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단속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일부 중개업자들은 한동안 문을 닫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매수

희망자와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성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빌딩이나 재건축 거래가 많은 용산 등에선 다룬 계약서를 작성이 빈번하니까 단속을 앞두고 숨길게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어차피 그런 지역은 고객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영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반기엔 1억 더 올라있을 것’

정부의 불시 점검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진없는 와중에도 호가는 올랐다.

마포구 ‘마포자이’ 84.692㎡의 경우 중저층이 10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0억3000만원대에 호가된 물건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물이 거의 회수돼 나와 있는 매물이 귀한 시점”이라며 “지금 추세로 보면 하반기엔 1억~1억5000만원엔 더 올라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를 보면 이달 체결된 건만 봤을 때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2단지’는 59.9656㎡가 8월 1~10일 10억2000만원(7층)에 거래됐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현재 중소형 평수가 11억원대부터 호가가 형성돼 있다.

그는 “이달 초만 해도 10억원대부터 매물이 나왔는데 주변 집값이 오르면서 집주인이 가격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며 “이마저도 거래가 완료되고 현재는 매물이 한 건도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용산구 서빙고동, 한남동, 갈월동, 남영동, 염리동 등에서 8월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시범아파트 등이 있는 여의도동에서도 거래가 제로다.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은 “이번 합동점검은 집값 안정화 효과보다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불법이나 편법의 소지가 많다는 걸 알리으로써 현재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용산, 여의도 주변엔 매물도 없고 비수기인데 호가가 오르니 미리 염포를 놓기 위해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것”이라며 “그것보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처럼 공인중개협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권한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제언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5년간 초과 세수 60조 예상 내년 적극적인 재정 나설 것”

김동연 부총리, 국가재정포럼 강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을 하며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양호한 세입여건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가려고 했다”며 “내년 치 목표치를 2%포인트(p)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원래 2%p 올리는데다가 추가로 플러스알파(α)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은 다음 주쯤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대 재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율)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내용”이라며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면 확대 재정을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손해봐도 팔고 보자... ‘어른이보험’ 경쟁과열

(어른+아이)

장기적 손해를 악화 우려에도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확대·경쟁 보험사CEO 모럴해저드 지적도

올해 들어 어린이보험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가 해당 상품의 가입연령을 30세까지 확대·출시하면서 일명 ‘어른이(어른+아이)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른보험보다 ‘더 싸게, 더 길게’ 보상받는 어른이보험을 놓고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품임에도 손보사 최고경영자(CEO)가 ‘내 임기 때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MG손보 등 손보사들이 기존 17세까지 가능했던 가입 나이를 30세까지의 성인도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보험을 일제히 개정 출시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처음 확대한 곳은 DB손보다. DB손보는 4월에 출시한 ‘아이리브건강보험1804’의 가입 가능 나이를 기존 20세에서 30세로 올리고,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담보를 신설했다. 같은 달 메리츠화재도 ‘내맘같은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0세로 확대하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확대했다.

두 손보사는 이 덕분에 좋은 실적을 거뒀다. 4월 기준 DB손보의 어린이보험 판매 건수는 2만2450건, 원수보험료는 16억 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도 5월 기준 판매 건수 1만8673건, 원수보험료 14억 2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어린이보험을 업계 최초로 내놓은 현대해상도 지난 6월 ‘어른이보험’ 흐름에 가세했다. 이에 6월 기준 판매 건수 2만 8000건, 원수보험료 14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전체 어린이보험 원수보험료 점

유율(30%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0세로 확대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보험사 CEO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린이보험은 성인 대상 상품보다 보험료는 짧게, 적게 내고 보장기간과 보장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이득이지만 보험사로서는 장기적으로 쥐야 할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CEO들이 당장의 매출을 위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밀지는 장사 안 한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손해율이 모두 계산돼서 출시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멀리 봤을 때는 손해율이 올라갈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보험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때는 상품위원회를 열어 상품에 대한 검증 후에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주 기자 hj9@

‘BMW 운행중지’에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비상

車 매각 또는 안전진단 중 서비스 재개 여부는 미정

국토교통부와 BMW 코리아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업체와 카셰어링 업체들은 BMW 차량 서비스 재개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들이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대상차량 목록과 운행중지 협조요청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9700여대가 안전진단 예약 대기

중이다.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주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19~20일 정도에 차주들이 우편으로 명령서를 받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전에 안전진단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진단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토부와 BMW 코리아의 노력과는 별개로 렌터카,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아직 서비스 재개에 대한 계획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카셰어링 업체 쏘카는 BMW 520d, X3의 셰어링 서비스를 8월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쏘카는 리콜 차종

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대차를 요청했다.

쏘카 관계자는 “BMW 해당 차종 56여대에 대한 셰어링 서비스 재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모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신형 BMW 차량을 들여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렌터카 업체 역시 서비스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AJ렌터카 관계자는 “BMW 차량의 단기 렌트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 렌트의 경우 현재 안전진단 점검을 안내하고 있는 입장이라 서비스 재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영우 기자 yw964@

>> 1면 ‘J노믹스 1년...’서 계속

정부, 패키지형 R&D도입 ‘8대 선도사업’ 지원 확대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 그간 외국 투자기업들이 꾸준히 불만을 제기했던 경직된 노동시장이나 규제환경,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아직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비판 여론에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어떤 산업이 여기에 속하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 정책 가운데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정도만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핵심 선도사업의 연구개발과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연계 추진하는 패키지형 연구개발(R&D)을 도입하고,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 활성화 지원과 투자, 세제지원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아마존-MS, 인공지능 비서기능 통합 파장은

韓, 11.1조 시장 놓고 부분협력 활발... 전면통합은 '글썸'

(2020년)

애플 '홈팟' 스피커시장 독자 개척
구글, 안드로이드로 '점유율' 전략
2020년 세계시장 470억달러 전망
韓, 연평균 20% 성장 예상하지만
아직 美 AI 기술력에 1.8년 뒤쳐져
삼성·LG유플러스 등 국내기업
연구소 설립 등 투자·협력 시동



KT는 7월 24일 현대, 기아자동차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집안에서 편리하게 음성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홈투카' 서비스를 출시했다. /KT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 스마트홈 서비스인 'U+우리집AI' 서비스는 네이버의 '프렌즈'를 인공지능 스피커로 사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러스는 오프라인 채널과 홈서비스에 강한 자사가 AI플랫폼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에 강한 네이버와 시너지를 잘 내고 있다고 자평한다.

유플러스 이해성 AI서비스담당 상무는 "경쟁사보다 다소 늦었지만 네이버와의 제휴를 통해 AI스피커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단순히 기술력을 자랑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 고객 가치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가지니를 서비스하고 있는 KT 역시 관련 협력에 상당히 유연한 입장이다. KT 강호성 팀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API를 공개하고 있으며 서비스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진 경쟁사가 상호 협력제의를 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아마존과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비서 기능 통합 발표 이후 파급 효과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서도 통합 또는 협력 움직임이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다.

AI 비서 시장은 2014년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한 시리 서비스를 통해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후 아마존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가 AI 스피커 제품을 내놓으면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플랫폼이 다르고, 장점으로 내세우는 부분도 약간씩 다르지만 현재는 어느정도 기술적 우위가 드러난 상태다.

애플은 홈팟을 통해 독자적으로 AI스피커 시장을 개척 중이고 구글 어시스턴트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기본으로 들어가며 점유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독자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아직 제휴 움직임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AI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기능 통합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 현재 관련

산업 규모는 세계 시장이 2016년 80억 달러에서 2020년 470억 달러에 이르고, 한국도 2016년 5조4000억원에서 2020년 1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9.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시장에는 이통사인 SK텔레콤의 '누구'와 KT의 '기가지니', 포털업체인 네이버의 '프렌즈', 카카오의 '미니'가 각각 출시돼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주요 경쟁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중국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술격차를 1.8년 정도로 보고 있다.

격차의 주요 원인은 투자 시기와 규모다. 구글은 2016년 123억달러(13조원), 알리바바는 2017년부터 3년간 1000억위안(17조원) 투자계획을 밝힌 뒤 지금까지 진행해왔다. 국내 기업 중에는 네이버가 2017년부터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한다

고 선언했다. 삼성전자도 한국·미국·영국·캐나다·러시아 5개 지역에 AI 연구소를 세우고 1000여명의 관련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규모경쟁으로 향한다면 국내 기업도 몸집을 불리기 위해 서비스와 투자를 통합해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향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분적인 협력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작년 12월 자사 IPTV와 사물인터넷(IoT)에 네이버 AI 플랫폼인 클로바 기반 AI 스피커를 결합한 스마트홈 서비스 '유플러스우리집AI'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유플

윤석현 "즉시연금, 보험사 책임"

(금융감독원장)

약관설명 미흡·운용비 위험 전가
삼성·한화생명, 권고사항도 거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원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고, 삼성생명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보험사에 대한 질타와 함께 윤 원장은 이들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도 열어두며 즉시연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은행은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바로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당연히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즉시연금 논란의 책임을 보험사로 돌렸다.

윤 원장은 이어 "은행이나 보험 모두 운용 경비가 들어가지만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하고 보험은 운용비용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한다"며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위험을 더 부담해야 하고, 일부 전가하더라도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해

서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 규모가 세계 7위 수준인데 규모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 설명 위반에 대한 제재나 종합검사 등은 즉시연금 관련 소송 진행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제재를 위해 검사를 시작하면 보복 프레임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검사를 나가야 할 일까지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암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암보험은 즉시연금과 같은 일괄구제는 가능성이 낮을 전망이다.

윤 원장은 "기간 치료 등 암 자체가 복잡하기도 해서 균일 상품으로 간주하기가 쉽지 않다"며 "암보험은 다르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Lifeplus

최초의 생명보험사로서
고객의 삶과 함께 한 **한화생명**

숫자가 아닌, 느낌과 경험으로
함께 생각하는, 유연한 소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에서

이제,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융을 하는 이유, Lifeplus



한화생명



SK하이닉스 ‘청년 실업·中 소 구인난 해소’ 팔 걸었다

청년 희망나눔 프로그램 실시
200명 청년 인재 육성·지원
인턴십 거쳐 취업기회 제공

SK하이닉스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희망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희망나눔은 직무교육 및 인턴십 제공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34세 이하 청년과, 인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SK하이닉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SK하이닉스의 협력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인재는 SK하



16일 열린 ‘청년희망나눔’ 프로그램 설명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하이닉스

이닉스에서 실시하는 6주간의 직무교육과 채용기업에서 진행되는 3개월간의 인턴십을 거쳐게 된다.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마치고 취업의지와 실력이 증명되면 S

K하이닉스 1, 2차 협력사 취업 기회가 제공된다.

SK하이닉스는 교육과 인턴기간 중 지급되는 교육훈련비(1인당 100만원)와 인턴급여(1인당 월 180만원)를 부담한다. 정규직으로 최종 취업된 인원이 1년 근무하는 경우 근속 축하금(1인당 300만원)도 지원한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에는 SK하이닉스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올 상반기부터 시범 적용 중인 AI 자기소개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직무교육은 인턴 직무에 맞춰 반도체와 경영일반 2개의 과정으로 각각 운영된다.

반도체 과정은 SK하이닉스 대학(SK HU) 전임강사가 반도체 현장의 실질적인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

턴십 동안 협력사의 효과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개인별 행동유형 및 성향 분석 결과가 포함된 종합 육성 가이드를 협력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사전 니즈 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37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16일 이전 본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SK하이닉스 지속경영 담당 신승국 전무는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것도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해야 할 책무”라며 “SK하이닉스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우수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삼성 갤럭시노트9, 中 소비자에 구애

31일 첫 선... 신뢰 회복에 노력
위챗과 협력해 사용자 기능 강화

삼성전자가 15일 중국 상하이 1862극장에서 현지 미디어, 갤럭시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갤럭시 노트9’의 중국 출시를 발표했다.

이 날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제품 디자인부터 판매, 마케팅까지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듣고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9 중국 출시에 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위챗과 협력해 다양한 위챗 기능을 사용자들이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현지 40여개의 인기 게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성능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고사



지난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갤럭시 노트9’ 출시 행사에서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이 ‘갤럭시 노트9’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양 게임도 장시간 성능 저하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갤럭시 노트9은 중국에서 8월 31일부터 미드나잇 블랙과 오션 블루, 메탈릭 쿼퍼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조현준의 투명경영... 효성 분할4사, 시장과 소통 강화

분할 사업회사 ‘코퍼레이트 데이’
사별 설명회·기관투자자 만남 가져

효성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처음으로 공동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각 사업회사를 중심으로 시장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효성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효성 분할 사업회사들이 16~17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독립경영체제 구축 후 처음으로 공동기업설명회인 ‘코퍼레이트 데이(Corporate Day)’를 개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코퍼레이트 데이는 조현준 회장이 지난 해 취임한 이후 투명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확대해 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효성은 이번 코퍼레이트 데이 행사에 국내 110여곳의 기관투자자를 초청했다. 효성은 각 분할 회사별로 설명회 부스를 마련하고 1시간씩 순차



효성이 분할 이후 처음으로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대표이사와 재무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16~17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에서 공동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효성

적으로 기관투자자들과 만났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 효성의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 등 향후 주요 사업 계획을 밝혔다.

우선 효성티앤씨는 2019년까지 인도에 스파텍스 공장을 건립해 시장점유율을 70%까지 늘리는 등 인도 내수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1위의 ESS(에너지 저장 장치) 업체로, 전력 계통 운

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코드사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등 신시장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효성화학은 베트남 남부 바리우붕다우성에 폴리프로필렌(PP) 공장 건립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약 12억달러 규모의 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 생산 공정 및 기반 시설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유진 기자

‘제네시스’ 세계적 디자인 경쟁력 입증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서 7개 상 수상

현대자동차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세계적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7개의 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20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4개를 수상했으며 제네시스 브랜드는 2개의 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는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4개를 수상했다. 수상 제품과 분야는 ▲미니버스 ‘솔라티’ 무빙호텔(최우수상, 사운드 디자인 분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소전기에너지 체험관 파빌리온(본상 2개, 브랜드 경험 설치물 및 사운드 디자인 분야) ▲파이어나이어스 필름(본상, 필름&애니메이션 분야) ▲세이프티 홀로그램(본상,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야)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솔라티 무빙호텔은 자동차의 역할을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로 개발된 맞춤형 차량으로, 가수·배우 등 연예인에게 최적화된 공간으로 디자인됐다. 솔라티 리무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솔라티 무빙호텔은 S



현대차 솔라티 무빙호텔.

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진행한 ‘현대 X SM 무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공개됐다.

또 현대차 파빌리온은 수소전기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감각적 디자인과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제시해 평창올림픽 때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프랑스 칸 국제광고제에서 디자인 카테고리 본상(동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자사 브랜드의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독립형 전시관인 ‘제네시스 강남’과 이 브랜드의 독자적인 음향 체계인 ‘제네시스 사운드’가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리테일 디자인과 사운드 디자인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탔다. /양성운 기자 ysw@

SKT, 전국 기지국으로 지진감지 ‘촘촘하게’

기상청과 지진관측 MOU 체결
감지 센서 설치해 데이터 수집

전국 방방곳곳에 구축된 SK텔레콤 기지국이 보다 촘촘하게 지진을 감지한다.

SK텔레콤은 기상청과 지진 관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진 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전국에 위치한 기지국사 중 8000곳에 지진 감지 센서를 설치한다. 기지국사에서 제공되는 지진 관련 정보는 기상청이 보유한 지진 관측소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함께 보다 정밀한 지진 관측을 위해 사용된다.

SK텔레콤은 내달부터 포항·울산·경주 등 지진 다발 지역 300개 기지국사에 센서를 우선 설치하고, 오는 2020년까지 전국 80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크기의 지진 감지 센서는 ▲지진과 강도 ▲중력 크기 ▲진동 세기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계다.



기상청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왼쪽)과 남재철 기상청장이 참석해 양사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지진 관측 정보를 기상청에 공유하면, 기상청은 해당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진을 감지할 계획이다.

기지국사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온도 및 습도 유지 ▲외부인 출입 제한 ▲24시간 전원 연결 등이 요구된다. 기지국사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지진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정보 신뢰도를 보장하는 최적의 장소다.

기상청의 ‘2017 지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223회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포항에서 규모 5.4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단위의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전국 8000개 기지국사에서 수집된 다량의 지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지진 관련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지진 조기경보단축기술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과 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산업 현장의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상청의 지진 통보 시스템과 대규모 제조 공장·건설 현장을 사물인터넷(IoT) 망으로 연결해 대규모 지진 감지 시 조기 경보를 통해 인력 대피 ‘골든 시간’을 확보하고 공장 가동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식이다. /김나민 기자 silkni@

제주·티웨이 ‘잔칫집’... 진에어는 면허취소 ‘노심초사’

LCC업계 상반기 실적

제주항공, 매출 첫 5000억원 돌파
진에어, 하반기 면허취소 여부 발목
2분기 주춤했지만 역대 최대치 달성
티웨이, 상장LCC중 영업이익률 1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다만 진에어의 경우 면허취소 관련 국토교통부 청문회로 발목을 잡혀 하반기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833억원, 영업이익 11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유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8% 감소했다. 그럼에도 제주항공은 상반기 연결기준



제주항공 항공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26.4% 늘어난 5918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9% 증가한 581억원, 당기순이익은 66.6% 증가한 538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매출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영업이익 역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수준으로, 제주

항공은 2014년 3분기 이후 16분기 연속 흑자를 실현했다.

진에어도 2분기 영업이익에선 감소세를 보였지만, 상반기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진에어는 2분기 영업이익이 62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50%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8% 감소했다. 매출

은 2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티웨이항공도 상반기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0% 넘게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인 471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상반기 매출액은 3662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보다 40%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3%를 기록하며 두 자리 수 성적표를 이어 나갔다. 상장된 LCC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진에어는 면허취소 여부와 관련한 국토부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도입을 통해 전략적으로 신규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경쟁업체와 달리 하반기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진에어가 신규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항공사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효율적 기재 운영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하반기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결정이 나오게 될 경우 진에어는 자연스럽게 상장폐지를 통해 자본을 잠식하게 된다. 또한 해외투자자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근거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으로 여객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라며 “LCC 업계는 하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에어의 경우 상반기 실적보다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게임처럼 즐겁게 다가갔더니 인기... 추억은 가장 좋은 홍보”

인터뷰 | 넥슨 SNS 'B급 감성'의 주역 조금래·오성규 PD

회사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즐기는 직원에게 뒤에서 상사가 다가와 “또 게임 하나”고 지적을 한다. 그러자 직원이 “게임이 아니라 음악 감상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어폰을 빼고 소리를 들려주자 지적을 하던 상사가 뜬금없이 하늘로 올라가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와 춤을 추며 앵콜을 외친다.

넥슨의 스테디셀러 ‘메이플스토리’의 배경음악(BGM)을 겨냥해 만든 영상이다. 메이플스토리는 ‘갓(GOD) 브급(BGM)’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추억의 배경음악으로 이용자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조금래(34)·오성규(31) 홍보기획팀 프로듀서(PD)는 ‘B급 감성’으로 재미를 끌어내 유저들의 추억을 끌어낸다.

“게임 회사에 다니면 게임 많이 할 수 있나요?”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만든 ‘몰컴(몰래하는 컴퓨터)’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조회수 117만회를 돌파했고, ‘좋아요’ 1만5000여개를 받았다. 만우절(4월 1일)에는 넥슨 게임 캐릭터들이 회사로 출근하는 이미지와 택시

기업 SNS서 친근한 콘텐츠로 화제
회의 없이 재밌으면 즉흥적으로 제작
SNS, 개발자와 유저간 긍정적 스킨십
유튜브 본격 공략위한 콘텐츠 만들 것

기사가 넥슨을 넥센으로 착각해 회사에 지적하게 됐다는 설정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꿈의 회사’, ‘넥슨에 취업하고 싶다’는 호평 위주의 댓글이 대다수다.

이 같이 의도된 ‘B급 감성’ 영상으로 넥슨의 페이스북은 약 58만여명이 팔로우를 할 정도로 컬트적 인기를 끌어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넥슨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만난 조금래 PD는 “기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기업의 제품을 연상하거나 떠올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게임 회사의 본질은 ‘재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머를 콘셉트로 해서 튀고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었다”



오성규(왼쪽)·조금래 넥슨 홍보실 프로듀서(PD)가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넥슨

고 말했다.

2013년에 넥슨에 입사한 조금래 PD는 애초 영상·사운드팀에 있다가 홍보팀과의 인연으로 SNS 바이럴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게 됐다. 바이럴 콘텐츠는 지면이나 이미지보다는 영상이 잘 먹힌다. 혼자 고군분투 하다 지난해 오성규 PD가 합류한 이후 촬영이 훨씬 수월해졌다.

진성 ‘게이머’들이라 팀워크도 잘 맞는다. 성격상 중고등학교 때부터 남앞에서서 길 좋아했다는 조금래 PD가 연기를 하면, 오성규 PD가 컴퓨터그래픽(CG)으로 합성을 해 B급 감성 특유의 코드를 만든다.

오성규 PD는 “아이디어 회의는 따로 하지 않지만 즉석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흥적으로 만든다”며 “트렌드에 민감한 SNS 특성 상 시기를 맞춰 빠르게 제작하는 것을 목표”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유튜브와 게임방송 플랫폼 트위치까지 손을 뻗었다. 담당하는 채널은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채널·유튜브·트위치 등 총 5개에 달한다. 하나의 콘텐츠로 목적이 맞게 플랫폼 별로 가공해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유튜브에 대한 고민이 크다.

페이스북은 대략적이라도 유저들에게 어떤 반응이 올지 감이 생겼지만, 유튜브는 반응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금래 PD는 “유튜브가 급격하게 성장해 최근 캐주얼 게임의 주요 타깃층인 10대들에게 영향력이 커졌다”며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지속적인 콘텐츠 공급체계를 만드는 것이 올 상반기 목표”라고 귀띔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최근 넥슨의 개척형 오픈월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 RPG) ‘듀랑고’의 과식을 직접 만들어 개발자들에게 시식을 하게 한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20만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저렴한 기발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유저들을 끌어 모으고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다. 특히 넥슨 페이스북 팔로워는 대부분 게임을 좋아하는 코어 유저 집단이기 때문에 광고 집행에도 효율성이 높다.

조 PD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도 많은데 SNS 영상을 통해 개발자와 유저가 스킨십 하면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게임 이용이 뜸해가거나 떠난 유저들도 추억의 게임이 담긴 콘텐츠를 보고 다시 돌아온 분도 많다. 추억이 가장 바이럴 마케팅이 잘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전자 기업용 복합기 ‘MX4-R’

삼성전자가 기업용 디지털 복합기 멀티익스프레스 4 리노베이션(MX4-R·사진)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성 MX4-R은 2014년 복합기에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해 주목 받은 멀티익스프레스 시리즈에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을 더 높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화이트 컬러로 어떠한 사무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급지함 손잡이가 측면부에 위치해 세련된 디자인을 갖췄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KT “LTE유심 가입부터 개통까지 5분”

‘바로개통유심 서비스’ 출시

KT가 LTE 유심 개통 신청부터 완료까지 5분 내로 가능한 바로개통유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KT샵, 지마켓, 옥션) 및 오프라인(인천공항 KT로밍센터, M&S 매장) 매장에서 바로개통유심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은 바로개통이 가능하다. 온라인 KT샵을 통해 ‘본인확인→유심 정보입력→번호 및 요금제 선택’의 3단계만으로 상담원 연결 없이 5분 이내로 LTE 유심을 개통할 수 있다.

마이 케이티 앱(고객센터앱) 최신버전을 이용하면 신용카드와 유심정보를 사진인식 기술을 통해 쉽게 입력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25% 요금할인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KT샵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KT샵 내 직영온라인을 통한 신규 혹은 기기변경 신청 시 상담사와의 통화 없이 원하는 시간에 개통 가능한 바로개통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안병도 기자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대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시중은행, 3분기 채권만기 17兆... 차환 발행 서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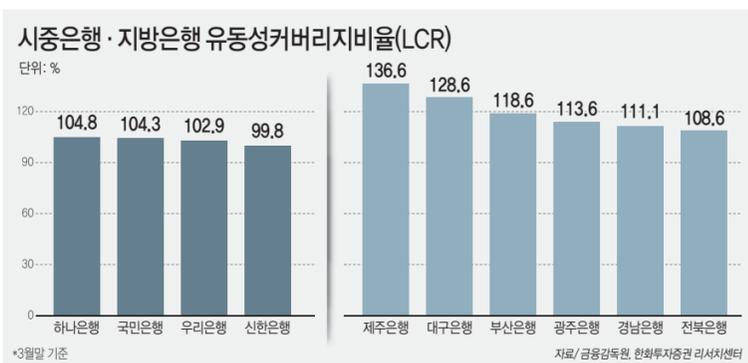
연말 '금리역전폭 확대' 부담 가중
예대율 상승에 예수금 확보 부담 ↓
낮은금리 자금조달 '채권발행' 증가

국내 은행들이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은행채 발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8월에 7조4000억원 규모의 은행채 만기를 포함해 남은 3분기에 17조원 규모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고유동성 자산 확보를 위한 은행채 발행 유인이 있다. 예대율규제가 오는 2020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예수금보다 채권 발행유인이 커진 것.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대신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영역에 나선데 따른 자금 수요도 있다.

16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8월 은행채 만기는 약 7조4100억원 규모다.

남은 9월(만기 9조5000억원)까지 확대하면 남은 2개월 동안 16조9100억원의 빚



을 상환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두 달 동안 1조4200억원(8월 7000억원·9월 7200억원)의 빚을 상환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1조 1100억원(8월 3500억원·9월 76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9500억원(8월 2500억원·9월 7200억원), 4600억원(9월 4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여건이 좋을 때 미리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본다.

최근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금리역전폭 확대'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쟁적으로 돈을 풀던 세계 주요국이 내년에 잇따라 '돈줄 죄기(통화 긴축)'에 나선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

적 재정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가산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발행이 늘고 있는 조건부차본증권(Tier1코코본드)의 가산금리는 낮아졌으나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발행금리는 높아지는 추세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이 지난 4월 발행한 5년 콜옵선부 조건부차본증권의 발행금리는 4.08%였다. 이는 지난해 9월 3.77%에 비해 절대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자금조달 구조상 비용을 40bp(1bp=0.01%포인트) 가량 절감할 여지도 생겼다. 예대율 적용시기가 올해 7월에서 2020년 이후로 1년 반 연기 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예대율 상승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예수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면서 "은행채 발행이 유리해지면서 6월 이후 은행채 발행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바젤III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지키기 위한 은행채 발행 유인도 있다.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 LCR은 대부분 100%를 웃돈다. 하지만 특판 경쟁으로 그 비율이 하락한 곳이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최근 특판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신기반이 약한 몇몇 은행은 예수금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으로 LCR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LCR규제 수준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상향되면서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하려는 은행들도 생겨나고 있다.

B은행 자금조달 담당 임원은 "채권만기에 따른 차환과 자회사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금리인상 이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하기 위해 채권발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통화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 및 변동성 확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진행된 '신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서약식'에서 위성호 신한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서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 '전 직원' 서약식

신한은행은 16일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서약식을 위성호 은행장과 직원들이 본점 영업부에서 가졌다.

'신한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 프로세스를 새로 정립해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이해하기 쉬운 상품설명 ▲구속행위 금지 ▲약관·상품서 제공 등 영업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

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 공시 및 광고 ▲민원(분쟁) 처리 ▲고객정보 보호 등 영업단계별로 지켜야 할 기준을 담아 더욱 실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리준칙 준수여부 점검 절차 및 유사행위 재발 방지 조치 마련을 통해 새롭게 규정한 준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기적인 서약을 통해 금융서비스업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원칙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NH농협생명 무배당 'NH온라인플러스저축보험' 출시

NH농협생명은 16일 NH온라인플러스저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20~40대 고객만을 위한 온라인보험 전용 상품으로 보험 가입 후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환급을 보장한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만기시점에 '만기유지보너스'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이 상품은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험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경제상황에 여유가 있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납입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에서 중도인출 할 수도 있다.

가입나이는 만19세부터 49세까지, 월



보험료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다. 가입은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사이트에서 가입 가능하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온라인저축보험의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0일까지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커피 쿠폰의 행운을 제공한다.

/김희주 기자 hj89@

예금 금리는 찔끔, 대출금리는 쾅쾅

국내은행 상반기 이자이익 20兆 육박

금감원 "전년 동기비 9.5% 증가"

운용자산 증가로 순이자마진도 ↑

국내 은행들의 상반기 이자이익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대출규모가 크게 늘었고, 금리 상승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랐지만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된 탓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한 가운데 순이자마진(NIM)도 상승했다.

이자수익자산(평잔)은 작년 상반기 1985조9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104조 3000억원으로 100조원이 넘게 늘었다.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상반기 중 순이자마진(NIM) 역시 1.67%로 전년 동기 대비 0.06%포인트 개선됐다. 늘어난 이자이익에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4000억원으

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이자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는 실적이 악화됐다.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4%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일회성 주식매각이익의 효과가 소멸됐고, IFRS9이 시행되면서 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감소폭이 커졌다.

이와 함께 작년 상반기에는 외화순부채 상황에서 환율이 크게 하락해 외환·파생관련이익이 증가한 반면 올하는 환율

상승으로 이익이 줄었다.

대손비용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8% 줄었다.

국내은행의 상반기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9%,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9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2%포인트, 0.1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영업실적 개선에 당기순이익보다 자산과 자본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KEB하나은행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피트IN' 선포

KEB하나은행은 16일 스타트업(Start-Up) 등 벤처 생태계의 육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창업 문화 구현을 지원하고자 대화형 모바일 플랫폼 '피트IN'을 출시했다.

'피트IN'은 '사업'과 '아이디어'에 대해 벤처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참여자 중심의 모바일 플랫폼이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창업자와 법률자문, 투자자 등의 참여자들이 사업, 기술, 혁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문제해결과 사업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지원한다.

KEB하나은행은 '피트IN' 출시로 ▲사업과 아이디어 공유 및 평가 ▲특정 주제나 기술 관련 토론 ▲참여자 네트워크 형

성 및 대화 참여 ▲필요 콘텐츠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참여자들 간 소통을 확대하고 스타트업들의 초기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창업자는 창업자들로부터 위안을 얻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대화 위주의 참여형 플랫폼으로 구성함으로써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문제점 해결을 도와주는 차별화된 '생산적 금융'을 제공한다.

향후 '피트IN'은 KEB하나은행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운영을 맡으며 이를 통해 '오픈 액셀러레이팅(창업기업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문호 기자

KB금융그룹-삼성전자

금융 특화 스마트폰

'갤럭시 KB스타' 출시

KB금융그룹은 삼성전자와 제휴해 금융 특화 스마트폰인 '갤럭시 KB스타'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갤럭시 KB스타는 KB금융의 대표 앱과 금융서비스가 탑재된 고객 맞춤형 스마트폰이다.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 카드, 생명, 캐피탈, 저축은행 등 7개 계열사의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스마트폰에 KB전용 금융 서비스 공간인 'KB 스퀘어(Square)'가 탑재돼 자주 사용하는 계좌를 바로 볼 수 있는 계좌뷰, 킥 메뉴 등이 제공되며, KB금융의 이벤트나 최신 금융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안상미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세계일주 중!

사람이 사는 곳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 안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전세계 220여 개국에서
언제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KB증권 해외주식 아카데미 개최

KB증권은 오는 23일 서울 대치지점에서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해외주식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해외주식투자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KB증권의 해외주식전문 PB 및 세무전문 PB의 투자 노하우를 생생한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으며, 해외주식에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23일 오후 4시부터 KB증권 대치지점 3층 대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환율 전문가인 외환컨설팅부 민경섭 상무가 '주요 국가 환율 흐름 및 전망'을 강연한다. 문외는 KB증권 대치지점으로 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대신에프앤아이 전자채 판매

키움증권은 대신에프앤아이 전자단지 사채를 세전 연 2.70%에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신에프앤아이 전자채는 신용등급 A2 안정적(한국기업평가), 만기는 2018년 11월 2일(78일), 연 수익률은 세전 2.70% 수준이다.

한국기업평가는 대신에프앤아이가 진행 중인 '나인원 한남' 사업관련 임대모집 성과가 양호하여 유동성 부담이 완화됐으며, 준공시점까지 추가적인 재무부담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 것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등급을 책정했다. 해당 전자채는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이며,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 받는 할인채다.

/손영지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여름방학 어린이 회계캠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장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2018년 여름방학 어린이 회계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어린이 회계캠프는 초등학생부터 회계의 중요성과 기능을 가르쳐 회계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올바르게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어린이 회계캠프에는 공인회계사와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지도교사로 참여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회계의 역사, 회계의 기초개념과 중요성, 기업의 주요 활동인 구매, 생산 및 판매활동을 설명하고 체험토록 했다.

/손영지 기자

바이오株 거품우려에 주가도 요동친다

금감원 회계처리 공시기준 강화 R&D 비용 무형자산 처리에 제동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사가 강화됨에 따라 대부분 2분기 실적공시와 함께 정정보고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돼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봤지만 바이오주에 대한 불신과 기대가 교차하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16일 주식시장에서 이수앱지스는 전일 대비 3.49% 하락한 7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또 일양약품은 전일 대비 1.88% 하락했으며 메디포스트, 바이오니아, 일양약품, CMG제약 등 실적 정정공시를 낸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거나 장중 하락세를 지속하다 마감 직전 저가매수세의 유입으로 소폭 반등했다.

오스코텍은 13.64%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공매도 숏커버링(short covering)'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숏커버링이란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비싼 가격에 주식을 빌려 판 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값을 말한다. 실제 오스코텍은 회계 자산화 이슈가 불거진 5월부터 공

(2017년 영업이익의 정정내역)

종목	정정전	정정후
오스코텍	-1,637,183,469	-5,805,528,343
메디포스트	-5,311,451	-3,639,226,316
이수앱지스	-4,799,000,000	-8,047,000,000
바이오니아	-5,869,831,730	-4,954,727,845
일양약품	23,868,473,121	24,433,087,807
CMG제약	2,327,000,000	1,559,000,000

(단위: 원)

/자료=전자공시시스템 dart

매도 물량이 급증했고, 지난 7월 한 달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평균 10.4%에 달할 만큼 대량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1월(0.7%)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앞서 6개 기업은 2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지난 분기와 2017년 실적 정정공시를 냈다. 금융감독원이 바이오기업의 회계 감리를 시작하면서 바이오기업들의 개발비 자산화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흔히 바이오기업들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연구개발(R&D) 비용을 자산화해 왔다. 보통 R&D 비용은 회계 장부에 '무형자산' 혹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R&D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 이는 고스란히 회사 자산이 된다. 이 경우 장부상 회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나 재무구조도 좋아지게 된다. 문제는 불확실성이 큰 바이오기업들이 상용화 가능성이 크지 않은 R&D 비용까지 모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면서 금감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실제 오스코텍, 메디포스트, 이수앱지스, CMG제약 등은 자산화했던 연구개발비를 일부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지난해 실적이 크게 감소하거나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코텍은 지난 해 무형자산처리했던 55억5400만원의 연구개발비 중 10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에 영업손실은 16억3718만원에서 58억552만원으로 4배 가량 늘어났다.

메디포스트는 공시를 통해 "임상3상이 후에 발생한 지출 중 정부승인의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영업손실을 531만 원에서 36억3922만원으로 수정했다.

이수앱지스 역시 "신약 개발비에 대해 자산화 요건 재검토하여 개발비 관련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했다"면서 지난해 영업손실액을 정정했다. 이에 영업손실은 47억9900만원에서 80억47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바이오주 전반에 퍼졌던 훈풍은 이제 일부 수혜 종목으로만 진행될 것으로 봤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바이오주 전반에 불었던 광풍이 이제 잠잠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회계 처리 방식이 투명해지는 만큼 바이오 업계 육식을 가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제약·바이오주 회계처리에 대한 공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비는 회계처리 방법을 공시하고, 처리 내역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무형자산(개발비)과 판권비, 제조경비와 함께 회사별로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는 정보보조금 금액도 명시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e편한세상 영천' 청량리까지 1시간 40분



내년 복선전철 완공 교통망 개선 입주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북 영천에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e편한세상'이 첫 선을 보인다.

대림산업은 경북 영천 완산지구 도시개발구역 B-1·2블록(영천시 완산동 732-1번지)에 위치한 'e편한세상 영천' 아파트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영천'은 지하 1층~지상 25층 16개 동, 전용 74~184㎡ 1210가구로 조성된다.

세부타입별로는 ▲74㎡A 130가구 ▲74㎡B 48가구 ▲84㎡A 667가구 ▲84㎡B 180가구 ▲84㎡C 21가구 ▲112㎡ 156



'e편한세상 영천' 투시도.

/대림산업

가구 ▲144㎡ 6가구 ▲184㎡ 2가구다. 'e편한세상 영천'은 교통망 개선이 기대되는 단지다. 내년 말 대구선 동대구~영천 구간 복선전철이 완공, 개통되면 영천역에서 동대구역까지 약 17분에 도달한다. 청량리~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예정)이 마무리되면 청량리역까지 소요시간이 약 1시간 41분으로 단축된다.

영천시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는 자동차부품, 기계, 금속, 화학 등 70여

개의 기업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또 2023년까지 개발되는 하이테크 파크지구에는 항공전자, 스마트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관련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경마·테마파크시설로 꾸미진 복합 휴양레저 문화타운 '벤틱트파크 영천'도 조성된다.

단지는 진도 7 규모의 지진도 견딜 수 있는 특등급 내진 설계됐다.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30mm)보다 두 배 두꺼운 60mm 바닥차음 단열재를 설치,

층간소음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였다. 내외벽에는 단열 설계를 통해 열손실을 줄였다.

YBM과 연계한 영어마을을 조성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2년 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셔틀버스(단지별 25인승 각 1대, 총 2대)를 제공하고 골프연습장, 사우나실, 휘트니스 등의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790만원대다. 분양조건은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1단지와 2단지 동시 청약도 가능하다.

분양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30일이며, 9월 12~14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e편한세상 영천'의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968-3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1년 3월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견본주택 개관

㈜한양

711가구 중 255가구 일반분양

㈜한양은 경기도 성남에 들어서는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견본주택을 17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16일 한양에 따르면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622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25층 7개 동, 40~74㎡(이하 전용) 711가구 중 2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세부면적별로는 ▲40㎡ 104가구(일반 59가구) ▲50㎡A 220가구(일반 180가구) ▲50㎡B 36가구(일반 6가구) ▲59㎡A 217가구(일반 3가구) ▲59㎡B 88가구(일반 5가구) ▲74㎡ 46가구(일반 2가구) 등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 조감도

/한양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는 도보 거리에 하원초·대원중·금광중·송신여중·송신여고 등 초·중·고교가 위치한다. 단지 주변에는 성남시 중원 어린이도서관, 우주체험관도 있다.

교통망도 갖췄다. 성남IC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이동 가능하다. 분당

-수시간 고속화도로도 가까워 강남, 송파, 분당, 위례 등으로 갈 수 있다. 향후 서울-세종고속도로(예정),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예정) 등 교통호재도 예정돼 있다.

또 금광동 일대는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금광3구역)를 비롯해 금광1구역, 상대원3구역 등 인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 대단지로 탈바꿈된다. 추가 생활인프라 확충과 인구유입, 교통개선 등으로 주거환경 향상도 기대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검단산이 위치해 일부가구는 탁 트인 녹지조망을 누릴 수 있다. 교통체험학습장, 황송공원, 은행식물원, 자혜공원, 노루목공원, 은행권린공원도 가깝다.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653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1년 2월이다.

/채신화 기자

SK증권

서산 대산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투자·주선

SK증권은 한화에너지·한국동서발전·두산과 함께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인 대산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자 및 금융주선자로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공장 부지내에 국내 최초 50MW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연소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화력발전과 달리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발전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본 사업은 오는 2020년 6월 상업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손영지 기자

한전, 상반기 적자 8천억... 유가 올라 하반기도 먹구름

원전비중 8%→5% 줄어들었지만
값비싼 LNG 22%→29% 비중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정지 등 적자키워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 8000억원대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 내내 원전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측은 안전점검 때문에 원전가동률이 감소했으며, 하반기에는 원전의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설명했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하반기 수익성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8147억원의 (잠정)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의 2조3097억원 대비 3조1244억이나 급감한



전남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자리잡은 한국전력 사옥. /뉴스

수치다. 매출은 29조43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710억원 늘었지만 순손실이 1조169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2590억원 대비 2조4280억원이나 줄었다.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원전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LNG 등을 연료로 쓰는 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원전비중은 8%에서 5%로 줄었지만 LNG비중은 22%에서 29%로 늘었다.

국제 유가 상승,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정지 등도 적자를 키우는 데 한 몫 했다. 올 상반기 미국의 이란 제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유가가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도 28%나 올랐다. 국제 연료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영업비용의 32.5%를 차지하는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은 2조원(26.7%)이나 증가했다.

그 결과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총비용도 전년동기대비 2조1000억원(29.8%) 늘었고 납건물 철관부식, 콘크리트 공급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원전 정비일수 증가도 영업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신규 발전소 준공, 송전선로 신·증설 등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력설비 투자로 감가상각비도 4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측은 계절별 손익 구조상 2분기 수익이 가장 낮고 3분기 수익이 높은 점을 감안해 하반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원전가동률을 끌어올린다 해도 현재 석탄, LNG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두바이유가는 70달러선을 유

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에너지지원실장은 "에너지전환(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유가 등 변동요인이 있을 때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한전의 재무상태를 위협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해정 KB증권 연구원은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는 CPI 상승률(7월 1.5%)과 빠른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10월 전기요금인상 가능성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韓 GDP 1조5308억 달러 '세계 12위'

세계순위 러시아에 밀려 한계단 ↓
GNI 2만8380달러... 45위→3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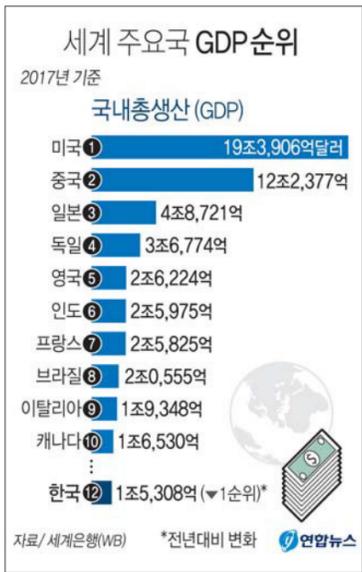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세계 순위가 한 계단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물가를 반영한 1인당 GNI 순위는 10계단 이상 뛰었다.

16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5308억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 GDP 세계 순위는 2005년 10위까지 올랐으나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밀렸다.

이후 2009~2013년에는 14위에 머물렀다가 2014년 13위, 2015~2016년 11위로 올랐다가 지난해 한 계단 떨어졌다.

한국보다 밑에 있던 러시아가 1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GDP 순위 1위는 19조3906억달러를 기록한 미국이었다. 2위는 중국(12조2377억달러)이었고 3위는 일본(4조

8721억달러), 4위 독일(3조6774억달러), 5위 영국(2조6224억달러), 6위 인도(2조5975억달러), 7위 프랑스(2조5825억달러)가 차지했다.

8~10위는 각각 브라질(2조555억달러), 이탈리아(1조9348억달러), 캐나다(1조6530억달러)가 올랐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과 관련 깊은 지표인 1인당 GNI에서 한국은 지난해 2만8380달러로 31위를 차지했다. 2016년 45위에서 14계단 뛰었다.

나라마다 다른 물가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들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구매력 평가(PPP)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8260달러로 역시 31위였다. 전년 48위에서 순위를 17위나 끌어 올렸다.

1인당 GNI 관련 지표 상승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환율 영향이 있어 보인다"며 "PPP 기준 1인당 GNI가 상승한 것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 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일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일뉴스

文 대통령 "은산분리, 특례법으로 풀 것"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초당적 협력

정부와 정치권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협치를 본격화한다.

국회는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은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갈

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우선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고, 필요시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오는 11월에 열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위한 법안,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이 포함된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3차(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김승호 기자 bada@

‘냉면값’ 6년만에 최대폭 뛰어

평양냉면 열풍+111년만의 폭염에
6월·7월 각각 4.5%·4.3% 인상

올여름 냉면값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평양냉면 열풍’에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 덕분이다. 특히 ‘냉면 격전지’인 서울의 냉면값은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더 올랐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냉면값은 1년 전보다 각각 4.5%, 4.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은 2012년 3월 5.3% 오른 이후 가장 많이 오른 달로 기록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냉면값 상승은 가파르다고 볼 수 있다.

냉면값은 올해 초부터 들쭉이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2%대 증가율을 보인 냉면값은 2월과 3월 각각 3.2%, 3.6% 오르며 3%대 상승률에 진입했다. 그러다가 4월 4.2%, 5월 4.1% 등 넉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는 4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냉면 인기 상승을 꼽을 수 있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회담에서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다”며 “(문재인) 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옥류관에서 공수해온 평양냉면을 맛보고 있다. /청와대

통령께서 편한 맘으로, 평양냉면, 멀리서 온, 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전국 평양냉면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111년 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날씨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냉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 냉면값 상승률은 4월 7.6%, 5월 7.1%, 6월 7.6%, 7월 6.3% 등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서울은 전국 냉면의 격전지다. 평양냉

면과 함흥냉면은 물론 칩냉면, 중국식 냉면 등 다양한 냉면 메뉴를 맛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가격 부담은 그만큼 크다.

세숫대야 냉면으로 유명한 인천의 냉면값 상승세도 서울과 쌍벽을 이룬다. 3~7월 매달 상승률 7.3%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상승률은 서울을 제쳤다. 7월 기준 냉면값 상승률은 인천과 서울에 이어 충북(5.9%), 부산(5.8%), 충남(5.6%), 광주(5.2%), 울산(5.2%), 전남(4.6%)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靑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 선임

비서관 총 4명 추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유민영(51) 에이케이스 대표(사진)를 임명했다. 최우규(50) 홍보기획비서관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비서관에는 김봉준(51) 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문화비서관에 남요원(56) 현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6일 자영업비서관 등 6명의 비서관을 인선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비서관을 임명했다. 유신임 홍보기획비서관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동암고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정부 때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을 지냈다. /김승호 기자 bada@

면세점 빅2, 사드 극복하고 중화권 공략 '승부수'

롯데면세점

알리페이와 연간 마케팅 제휴 체결
위챗페이와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

신세계면세점

中 여행사 '씨트립' 멤버십 서비스
칠석절페이백 등 쇼핑혜택 제공



온페이 QR코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16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점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한달 간의 테스트를 거쳐 9월 16일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유니온페이는 전세계 카드 발급량 1위를 자랑하는 중국 페이먼트사로 지난해 총 거래액은 한화 약 1경 6000 조원에 달한다.

또한 8월 성수기를 맞아 위챗페이와 온·오프라인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8월 31일까지 롯데면세점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위챗페이로 600위안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다음 200위안 이상 결제 시 사용 가능한 30위안 할인권을 지급한다.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는 온라인 위챗페이 결제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3% 특별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밸런타인데이적인 칠석절(음력 7월 7일) 프로모션 기간인 8월 21일까지 중 온라인에서 위챗페이로 77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중 77명을 추첨하여 항공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면세점 김원식 마케팅팀장은 “롯데면세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쇼핑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한동안 중단되었던 제휴가 다시금 시작되는 만큼,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도 중국인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0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C-trip)'과 제휴를 맺고, 씨트립 웹사이트 내 세계적 쇼핑 명소를 소개하는 '글로벌 쇼핑' 코너에 신세계면세점 입점 브랜드 소개 및 멤버십 회원가입 서비스를 오픈했다. 가입 고객에게는 상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실버 등급을 부여한다.

씨트립은 호텔예약, 항공권예약, 여행 패키지, 쇼핑환전 등 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플랫폼이다. 이용자 수만 3억명 이상으로 브랜드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번 제휴로 신규 고객 유치는 물론, 안정적 고객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11월에도 중국인 약 10억 명이 사용 중인 국민 메신저, '위챗'과 함께 업계 최초로 멤버십 서비스를 오픈한 바 있다. 위챗 멤버십 서비스 오픈 후, 외국인 회원 가입이 일 평균 150% 이상 증가했으며, 일 평균 매출도 2017년 10월 40억원대에서 2018년 4월 기준 50억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칠석절을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면세점 남 캠페인 모바일 매거진 메인화면

/롯데면세점

먼저 22일까지 커플이 동반 가입 후, 700달러 이상 구매하면 매일 선착순 3명에게 일정 금액을 페이백 해준다. 가입 후 합산 구매금액이 700달러 이상인 고객에게는 16달러의 페이백을, 1000달러 이상 구매 시에는 46달러, 2000달러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76달러를 페이백 해준다.

뿐만 아니라 오는 29일까지, 신세계면세점 공식 웨이보의 칠석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하고, 댓글로 연인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남기면 총 3명을 선발해 선물을 증정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 '로사' 능력 고도화 유통업계 대표할 'AI'로 키운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인공지능 채팅봇 '로사(LO.S.A)'가 8개월 동안의 고도화 과정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9월부터는 스마트스피커를 통해 '로사'가 백화점 쇼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롯데백화점은 향후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로사'를 유통업계 대표 인공지능으로 키울 계획이다.

'로사'는 패션, 식품, 리빙 등 모든 상품군에 걸쳐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온라인 쇼핑물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등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롯데백화점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하는 인공지능 채팅봇이다.

특히 기존 AI 쇼핑 도우미가 키워드 검색에 따른 상품을 고객에게 단순히 연결하는 것과는 달리 '로사'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과 연계해 고객의 구매정보, 행동정보, 관심정보, 선호정보 등을 수집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해 개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다.

더 많은 고객과 만날 수 있도록 채널도 확대했다.

먼저 공식 온라인 쇼핑몰 '엘롯데'에서만 제공하던 '로사'의 서비스 채널을 SNS로 넓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6월부터 97만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롯데백화점 공식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서도 '로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사'는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입점 브랜드, 영업시간, 휴무일 등 롯데백화점 35개 점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온·오프라인 쇼핑 경험 및 SNS 트렌드 등을 분석해 고객이 원하



고객이 로사를 통해 상품을 추천받는 모습 /롯데쇼핑

는 상품을 제대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로사'는 현재 인구통계학적 정보, 채널 별 구매 특성, 구매 이력, 선호도, 가격 민감도 등 101가지 항목으로 고객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SNS를 비롯해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패션 트렌드를 분석한다.

롯데백화점은 '로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롯데백화점 '로사'는 9월부터 'KT기가가니'의 스마트스피커를 통해 전국 롯데백화점의 쇼핑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KT기가가니'는 현재 약 80만명의 고객이 이용 중인 스마트스피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거실에서 만나는 백화점'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김명구 롯데백화점 디지털사업부장은 "지난 8개월 간의 경험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로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로사'를 상품 추천 및 데이터 분석을 넘어 다양한 쇼핑 편의를 제공하는 유통업계 대표 AI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성수기 호텔이용 몰리는데 서비스 못따라가

“체크인만 1시간?”... 호캉스, 불만 속출

(호텔+바캉스)

서비스·객실 청결 등 불만
인력보충 등 시스템 보강을'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호캉스족'이 늘어나면서 호텔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다. 무더위가 호텔업계의 단비가 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호황과 함께 고객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늘어나는 고객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할 직원과 객실이 한정된 탓이다.

16일 호텔 및 여행 후기가 올라오는 온라인 사이트에는 국내 호텔 이용에 대한 불만 사항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성수기와 '호캉스' 트렌드가 겹치면서 객실 가는 높아졌지만, 서비스는 이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불만 사항은 체크인·아웃, 서비스·시설 이용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객실 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점 등이었다.

실제, 최근 여의도에 위치한 호텔을 이용한 정모(35·회사원)씨는 “체크인 때 1시간 정도 기다렸다. 탈취제를 요청했을 때도 비슷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며 “사람이 많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데만 20분이 걸려 불편했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호텔을 이용한 송모(30·프리랜서)씨는 “깨끗한 객실과 빠른 서비스 이용은 좋았지만, 수영장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 10분 정도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어번아일랜드 밤 전경

/서울신라호텔

속출했다. 최근 서울에 오픈한 대형 호텔에 묵었다고 밝힌 누리꾼은 객실 청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장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을 불렀더니 변기 청소만 하고 가려기에 객실 내 냄새는 어떻게 하나니가 방문을 열어두라고 하더라”고 적었다.

호텔들은 이용객 증가에 따라 수영장 이용을 1박 당 한 번으로 제한하거나, 주차장 만차 시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등 나름대로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되레 이용객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성수기에만 잠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라 서비스 교육을 받지 못해 응대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소비자들은 호텔 측이 성수기 특수를 잡기 위해 터무니 없이 많은 손님을 받아 이 같은 일들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4성급 이상의 특급 호텔에서 기본적인 위생 상태도 갖추지 못하고, 고객의 요구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휴가철(7~8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는 총 1638건으로, 전체(8111건)의 20.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휴가철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자 위주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 피해가 난다는 분석이다.

이승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고객들은 특급호텔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숙박을 하니 고객서비스 정신을 더 갖출 필요가 있다”며 “성수기 때마다 되풀이된다고 그러려니 하지 말고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보상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객도 휴가를 꼼꼼히 읽고 호텔을 선택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관련 내용을 호텔에 알린 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서 기자 min0812@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Innovation Forum

제3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Logistics** Innovation Forum

|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 |

metro 경제

일 시 : 2018년 8월 29일 (수) 09:00-12:00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축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기조강연]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새로운 지정학: 협력과 경쟁의 이중주>
 원동욱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강연]

<TCR/TSR을 활용한 Intermodal 서비스>

안재호 CJ대한통운 상무

<한반도 철도사업의 의미와 추진과제>

윤희로 사단법인남북경제협력연구소 전문위원

<TBA>

(국가 물류정책 등)

행사개요 및 문의

일 시 : 2018년 8월 29일 (수) 09:00 - 12:00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주 최 : 메트로경제

후 원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김영진,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록 :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 (사전등록 무료)
 forum@metroseoul.co.kr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필수 기입)

문 의 :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사무국 02-721-9826

‘평창올림픽 특수 끝’ 강원 산업생산 22%↓… 전국 꼴찌

통계청 2분기 지역경제 동향

건설수주 706% -23% 감소세 전환
울산·전북 채용 줄어 실업률 ‘껍충’
반도체 효과로 인천·경기 생산 늘어

평창 올림픽 특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강원도 지역의 생산이 크게 위축됐다.

울산·전북 지역은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강원도 지역의 2분기 광공업 생산은 비금속광업 등이 줄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9% 감소했다.

이는 국내 전 지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0% 늘

면서 증가 폭이 전 분기(3.8%)보다 크게 둔화했다.

전 분기 706.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건설수주도 23.6%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평창 올림픽에 따른 생산·소비 특수가 사라진 영향이 큰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조선업·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영향이 계속되면서 관련 업체가 집중된 울산·전북·경남 지역의 일자리 지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울산은 취업자 수가 1만6천명 줄어 들면서 고용률이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한 59.2%에 그쳤다.

전북도 고용률이 0.7%포인트 하락한 59.0%를 기록했고 부산은 56.8%에서 55.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울산 지역 실업률은 3.6%에

서 5.0%로 경증 뛰었고 전북은 2.7%에서 3.0%로 상승했다.

고용 한파 영향으로 울산·전북·경남의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각각 0.6%, 0.3%, 0.5% 등으로 모두 0%대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과 경기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각각 10.2%, 8.2% 늘었다.

건설수주는 울산(83.2%), 충남(59.0%)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78.7%), 경남(-58.5%) 등은 주택이 주로 줄었고 세종(-56.3%)은 사무실·점포 등의 수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3.4%

늘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조선업 부진 여파로 경남은 53.7%나 줄었다. 반면 세종은 차량 부품을 중심으로 34.6% 늘었고 제주는 반도체 부품 호조세로 32.0%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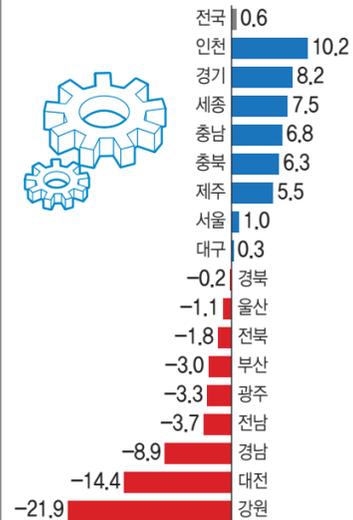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부산(2.0%), 대구·충북(1.8%) 등이 평균(1.5%)을 웃돌았고 강원(1.2%), 울산·전북(1.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산과 대전은 서비스 물가가 2.1%, 1.9% 올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구 이동을 보면 경기(4만199명), 세종(8409명), 제주(2769명) 등 6개 지역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2만9887명), 부산(-7372명), 대전(-3516명) 등 11개 지역은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시도별 광공업생산 증감률
2분기 기준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도산 안창호 탄생 140주년 기념메달 출시
한국조폐공사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조폐공사 영업개발단 제품홍보관에서 '도산 안창호 탄생 140주년 기념메달'을 선보이고 있다. 기념메달은 금(순도 99.9%, 31.1g), 은(순도 99.9%, 31.1g) 2종으로 금 300개, 은 1000개 한정수량으로 발행된다. 기념메달 가격(부가세 포함)은 개당 금메달 297만원, 은메달 11만원이다.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조폐공사, 풍산화동양행, 현대백화점 온라인 물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우체국 전국 지점에서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농식품부 아시안게임서 韓 ‘매운맛’ 알린다

홍보관 설치 등 농식품 집중 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연계해 한국 농식품을 집중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45개국 40종목 463개 경기를 개최하며, 한국은 39종목 1000여명이 참가한다. 관람자는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개·폐막식이 열리는 글로라봉카르노 경기장 인근 쇼핑몰(FX Sudirman Mall) 정면에 한국 농식품(K-Food) 홍보관을 설치한다.

이곳에서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와 아시아지역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을 5개 테마로 정해 전시·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K-프레시 존(Fresh Zone)’에서 배·사과·복숭아·버섯류(새송이·팽이)를 ▲‘레드 앤 핫(Red&Hot)’을 주제로 테마 오미자·홍삼·고추장·떡볶이 등 빨간색·매운맛 식품을 ▲할랄 구역에선 김치·간장·음료 등 MUI 인증품목을 ▲인기상품 구역에선 불닭볶음면·컵볶이·컵누룽지 등 인도네시아 인기품목을 ▲미래를 구역에선 유자이드베이스·복분자즙 등을 선보인다.

MUI는 인도네시아 유일의 할랄 인증 기관으로, 말레이시아 JAKIM, 싱가포르

르 MUIS와 함께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으로 불린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한 한식체험관(자카르타 한식당협의체), 전통문화 체험관(한국문화원), K-콘텐츠 홍보관(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농식품 이미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관측전도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메신저, 인도네시아 대형유통업체와 현지 진출 국내 유통업체(4개점)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아시안게임 연계 홍보가 끝나는 대로 미국·중국·프랑스·일본·홍콩 등 주요 농식품 수출국을 대상으로 K-푸드 페어(Food Fair)를 개최한다. 또한 국제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해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상승세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 페어(Food Fair), 국제식품박람회 등은 농식품 수출 확대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신선농산물에 대한 시식·관측 행사도 확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상장사 상반기 순익, 삼성전자 제외뎀 7.3%↓

전체 순익 63.4조원… 1.27% 증가
섬유의복·의식료품 분야 흑자폭 커

삼성전자를 뺀 상장기업들의 상반기 순익이 뒷걸음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924조 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4조 4000억원, 순이익은 63조 4000억원으로 각각 8.56%와 1.27% 증가했다.

순이익은 상반기 기준 종전 사상 최대인 지난해의 61조원(533개사 기준) 기록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805조 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은 0.20% 늘어난 53조 9000억원이고 순이익은 41조원가량으로 7.30%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순익은 22조 7000억원으로 전체 순익의 35.9%에 달했고 SK하이닉스는 7조 4000억원으로 11.8%를 차지했다.

분석 대상 기업 중 76.3%인 409개사가 상반기에 당기순이익 흑자를 냈으나 127개사(23.70%)는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적자전환 기업이 63개사로 흑자 전환 기업(32개사)의 2배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6월 말 현재 106.51%로 작

년 말(108.40%) 대비 1.88%포인트 낮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를 비롯해 의료정밀, 서비스업 등 13개는 작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고 운수장비, 기계, 통신 등 4개 업종은 감소했다.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 폭이 커진 업종은 섬유·의복, 음식료품, 의료정밀, 전기전자 등 8개였다. 기계, 운수장비, 비금속광물, 철강금속 등 7개는 흑자 폭이 줄었고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업은 적자 전환했다.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844개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83조 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65%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4조 5000억원으로 11.26% 감소했다. 순이익은 3조 6000억원으로 5.10% 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40%로 0.85%포인트 하락했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4.30%로 0.10%포인트 높아졌다.

/김민호 기자 kmh@

해수부 “한일어업공동체, 입장차 커 불발”

해양수산부가 이달 초로 예정됐던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양측 의견차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8년 어기(7월~2019년 6월)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수차례 협의해왔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 초까지 개최기로 예정되어 있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8년 어기 협상은 지난 4월 과장급을 시작으로 5~6월 국장급 3회, 6월 실장급과 차장급 각 1회 등 6차례 이어졌다.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경제수역(EEZ)에 입어했다.

하지만 2015년 어기(2015년 1월~2016년 6월)가 끝난 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올해 어기 협상에서의 주요쟁점은 한국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와 동해중

간수역의 대개 어장 교대 이용이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양국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 어선의 불법어업은 2012년 9건에서 2013년 12건으로 늘었다가, 점차 줄어 지난해 1건으로 줄었다.

한국 정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대개 어장 교대 이용은 양국 어업인이 2001년~2011년 자율적으로 일정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왔다. 하지만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됐다.

/이범종 기자

농관원 추석유동앞둔 농산물 잔류농약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20일부터 다음달 14까지 잔류농약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선물용 농산물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 품목은 햅쌀·사과·배·복숭아·포도·밤·대추·단감·도라지·고사리·시금치·배추·매론·수삼 등이다.

안전성 조사는 품목별 주산단지과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도로변 농가직판장 등에서 실시한다.

농관원은 주산지 농업인 등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지도·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농업인에게는 농약 살포 후 명절 성수기에 맞춰 출하 예정일보다 일찍 수확하게 되면, 부적합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이범종 기자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갈등

시민단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수용을”

시민권익위
“공론화위원회 먼저 구성해야”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논의에 나선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화중단을 선언하고 시민단체는 광주시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년 넘게 논의해 온 2호선 건설에 대해 이용섭 시장이 ‘공론화’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이 같은 갈등은 예고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모임은 최근 최영태 시민

권익위원장 주재로 3차례에 걸쳐 광주시 관계자들과 지하철 2호선 공론화 관련 준비 회의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시민모임이 주장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고 대안을 내놓지도 않아 공론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모임과의 대화에서 이용섭 시장이 주문한 ‘공론화위원회 선(先) 구성, 찬바람 불기 전, 9월 말 10월 초 결정’을 거듭 주장해 ‘숙의조사’를 요구한 시민모임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이날 회견에서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라는 광주시의 입장만을 강권하는 편향성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대화중단을 선언했다”며 “미리 준비한 공론화위원 후보 명단을 제시하고 시민모임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도대체 숙의 과정이 없는 공론화가 가능하냐 한 것인지 광주시

와 시민권익위원회에 묻는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지하철 2호선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시민여론이 건설반대로 풀릴 것을 미리 두려워하기보다 다시 한번 정책 결정에 앞서 진정한 시민의 뜻을 구하려 하는 겸손하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영태 위원장의 대화중단 사과와 일방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안 취소, 지하철 공론화 과정에 표본 시민의 직접 참여와 학습·토론 기회 보장, 이용섭 시장의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준비를 위한 직접 대화 등을 요구했다.

회견을 마친 이들은 광주시장실에서 이용섭 시장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한동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민권익위원회와 시민모임의 대화가 중단됨에 따라 지하철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찬바람 불기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봉재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1통에 20kg ‘무등산 수박’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청과매장에서 모델이 울며 처음 출하된 광주 대표 명물인 ‘무등산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 산기슭에서 재배되는 순재래종 수박으로 다른 수박보다 더 달고 시원한 맛을 지녀 예로부터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었다. 가격은 20kg 1통 38만원이다. /광주=봉재영 기자

진도 박준범씨, 태극기 사랑 실천

10년간 365일 태극기 게양
2015년 ‘태극기 마을’ 선정

애국(愛國)·애족(愛族)·애향(愛鄉)을 몸소 실천하는 진도주인이 있다. 그 주인공인 진도군 군내면 송산마을에 사는 박준범씨. 그는 10여년간 365일 태극기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관리하고 있다.

송산마을은 진도를 대표하는 항일 독립지사박종식(1911~1948) 선생의 고향이다. 그는 지난 1993년 건국 45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 투쟁의 공훈으로 건국 포장을 서훈 받았다. 박지원 국회의원이 박종식 선생의 아들이다. 박종식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을주민들과 향우들은 집집마다 거리마다 100여개의 태극기를 게양하고, 추모비를 건립 했다.

목포보훈지청은 2015년 송산마을을 태극기 마을로 선정했다. 7년 전 작고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설들을 관리하고 있는 박준범씨는 제



진도군 군내면 송산마을 박준범씨는 10여년간 365일 태극기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관리하고 있다.

73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폭염 속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아내며 태극기 교체 작업을 벌였다.

박준범씨는 “2009년 3월 1일부터 관리를 시작해 내년 3월이면 만 10년째이다”며 “앞으로 78세까지 산다고 계산하면 20년을 더 해야 할 일이지만 나라와 민족, 후손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겠다”고 웃어 보였다. /진도=김남중 기자 5555knj@

아시아 최대 ‘K-뷰티엑스포 홍콩’ 개막

20일까지 ‘홍콩컨벤션센터’서
경기도 16개사 등 27개사 참여



2018 K-뷰티엑스포 홍콩.

아시아 최대 화장품 수출입시장이자 한국화장품 수입점유율 1위, 홍콩 뷰티 시장 진출을 위한 ‘2018 K-뷰티엑스포 홍콩(K-BEAUTY EXPO HONGKONG)’이 16일 개막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홍콩컨벤션센터(HKCEC)’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경기도 기업 16개사를 포함한 국내 유망 뷰티기업 27개사가 참여해 화장품, 에스테틱, 헤어, 바디케어, 네일, 미용기기, 미용의료 등 다양한 품목을 출품한다.

공, 공항, 전시장, 숙소 이동 시 셔틀버스 무료 운행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유망 바이어 50개사와 200회 이상의 1:1 맞춤형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롯데홈쇼핑 본사도 직접 부스로 참가해 16~17일 양일간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롯데홈쇼핑 입점상담 및 기업수출 컨설팅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홍콩은 한국 화장품 수입 점유율 1위 시장으로 이번 K-뷰티엑스포가 대한민국 유망 뷰티 기업들의 중화권 시장 진출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박람회 기간 동안 바이어 수출상담회 지원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고성철 기자 ksc@

보성군 전남체육대회 엠블럼 등 상징물 공모

보성군이 내년 4월 개최되는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엠블럼, 마스크, 포스터, 구호, 표어 등 5개 부분의 상징물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심사 기준은 보성의 전통과 역사, 문화, 비전을 보여 줄 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는지, ‘녹차수도보성’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축제 한마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지, 전라남도 상징물과 개최지 보성군의 상징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본다.

전남체전 조직 위원회는 응모가 마감되면 별도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상징물 선정 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당선작 발표한다.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육상, 테니스 등 총 22개 종목으로 개최되며, 선수단 및 방문객 3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전라남도 최대행사이다. /보령=김남중 기자

인천지하철에 ‘힐링 메시지’ 바닥에 랩핑·QR코드 이벤트

인천시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에 힐링 메시지를 담은 광고와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살핀다.

시는 올해 말까지 인천 지하철 1호선 한량(5호) 바닥면 전체를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로 랩핑하고, QR코드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랩핑 광고 메시지는 ‘오늘도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내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문구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바닥의 QR코드를 읽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마음 건강 메시지를 적어 응모하면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마음 건강 메시지를 되새겨보며 마음 건강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



김성기 가평군수(좌측에서 네번째)

/가평군

친선축구대회 성금 보훈단체에 전달

가평 축구동호회 4개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제11회 보훈단체가족돕기 친선축구대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보훈단체에게 전달해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하고 신선함을 더했다.

가평군 축구동호회 4개팀(자이언트 F.C, 가평 50대 대표, 상면 F.C, 500 타이거즈)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0

일 가평군 청평면 소재 상천 에텐타운 축구장에서 친선축구경기를 펼쳐 모금된 430만원을 16일 보훈단체에게 전달했다.

성금전달식에서 김성기 군수는 “이 성금은 조국을 위해 희생해온 보훈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자”고 감사를 표했다. /경기=고성철 기자

과 관광 분야로 나뉘 각각 5명(팀)씩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이달 13일 기준으로 만 19~39세 이하로 여수시에 거주해야 하며,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뿐 아니라 창업 후 1년이 안 됐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4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서류와 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 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여수=김남중 기자

여수시 지역청년 창업비 1900만원 지원

여수시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한명 당 1900만원 정도의 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지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창업 지원금은 1인당 1500만원 상당으로 역량 강화비와 상품화 개발비, 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창업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등으로 4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10명(팀)으로 일반 창업

Angel-in-us Coffee®



아메리치노·달콤한 우유와 만나다



New

아메리치노 라떼



커피를 사랑하는 엔제리너스 커피는 SCA, ACE 국제 스페셜티 협회 공식 회원사입니다.

벤처자금 투자받은 기업, 자금수혈·고용창출 ‘두토끼’

550개 기업 2118명 신규채용
투자받은 기업 1곳당 3.8명꼴
연말까지 지원금액 3조원 전망

농수산물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벤처기업 켈리.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에 4개 벤처캐피탈(VC)로부터 총 75억 원을 새로 투자받았다.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온라인 식품 유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자금과 인력이 목말랐던 차에 단비를 만난 것이다. 켈리는 지난해 말 130명이었던 직원을 6월 말 현재 186명까지 늘렸다.

이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디자인스. 지난해 2월 설립한 스타트업인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에 청년창업펀드 20억 원을 포함해 총 80억 원을 외부로부터

〈2018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고용성과〉 단위:개사·억원·명

구분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2017년말 고용	2018년 6월말 고용	고용증감	고용 증가율
합계	550	13,281	17,338	19,456	2,118	12.2%

〈2018년 상반기 모태펀드 투자받은 창업 초기기업 고용성과〉 단위:개사·억원·명

투자연도	투자기업수	전체VC투자	2017년말 고용	2018년 6월말 고용	고용증감	고용증가율
2018	156	3,683	2,124	2,708	584	27.5%

〈2018년 상반기 청년창업펀드 투자받은 청년창업기업 고용성과〉 단위:개사·억원·명

투자연도	투자기업수	전체VC투자	2017년말 고용	2018년 6월말 고용	고용증감	고용증가율
2018	96	2,988	1,999	2,420	421	21.1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터 투자받았다.

마켓디자인스는 1년새 분기 매출이 3억원(2017년 1분기)에서 14억원(2018년 1분기)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직원 숫자는 지난해 말 10명에서 올 상반기엔 28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VC 등으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고용정보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에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

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550개 기업이 지난해 말 대비 2118명을 새로 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자받은 기업 1곳당 3.8명 꼴이다. 550개 기업은 올 상반기에만 1조3281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도 지난해 말 1만7338명이던 것이 올해 6월 말엔 1만9456명으로 12.2%나 증가했다.

550개 기업 중에선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156곳, 청년창업펀드 투자를 받은 청년창업기업 96곳이 포함돼 있다.

특히 투자받은 기업 중 창업 3년내 초기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눈에 띄었다.

초기기업 156곳은 6개월 새 인원이 2124명에서 2708명으로 584명 늘며 고용 증가율이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27.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창업펀드 투자기업 96곳

도 1999명에서 2420명으로 21.1% 늘었다.

중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추경 등 모태출자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이 투자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8월중 결정되는 일자리 매칭펀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지속성장에 투자하는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가운데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기업들이 받은 벤처투자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투자를 받아 늘어나게 될 고용인원은 5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향후 이들 기업은 2~3년에 걸쳐 총 1만명 안팎의 인원을 새로 고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박보검이 등장하는 에이스침대의 새 광고 화면.

에이스침대 새 얼굴에 박보검... 캠페인 전개

“젊은 세대까지 타깃 확장 기대”

에이스침대가 배우 박보검을 광고 모델로 등장시켰다.

1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그동안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카피를 중심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브랜드텔링을 전개해왔다면 이번 광고 캠페인은 전달하는 메시지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광고는 박보검이 청명한 숲길에서 기분 좋게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주로 실내에서 전개됐던 침대 광고

와는 다른 접근이다.

“침대 하나 바꿨다고, 당장 날아갈 듯 이야기하겠어요?”라는 카피로 시작하는 이 광고는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나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매일매일의 좋은 잠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그러면서 “성실하고 정직한 이미지와 젊은 세대에게 소구력 높은 박보검을 통해 에이스침대의 ‘좋은 침대’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 타깃 확장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보검이 등장하는 광고는 지난 15일부터 전파를 탔다.

/김승호 기자

韓 포함 15개국·350개 가구 브랜드 한자리에

29일~9월 2일 킨텍스에서

‘KOFURN 2018’ 개최

국내 최대의 가구산업 전시회인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2018)이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국내 가구산업의 현주소 및 가구·인테리어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OFURN 2018’은 올해가 29회째로 350여 기업체가 1900개 부스를 꾸미고 바이어와 관람객들을 맞는다.

특히 올해엔 터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14개국에서 제품을 대거 출품해 글로벌 시장 동향도 살펴볼 수 있다. 전시회에는 모던하면서도 실용성이 돋보이는 생활 가구부터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클래식 가구, 귀여운 디자인과 성장기능의 아동용 가구, 새로운 기술과 함께 사용이 편리하면서도 기능적인 스마트 가구, 창의적인 디자인의 인테리어 소



품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또 이번 전시회는 매년 10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고양가구박람회’와 함께 열려 다채롭고 풍성한 가구·인테리어 전시회로 꾸며진다.

‘2018 대한민국 가구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해 공간 활용도와 가능성을 갖춘 가구라는 주제로 한 다양한 가구 시제품을 만나볼 수도 있다.

차세대 가구산업을 이끌어나갈 대학생들의 참신한 디자인 감각이 빛나는 ‘제20회 대학생 가구디자인 작품전’도 전시한다.

이밖에도 국내 가구산업발전을 위한 ‘2018 대한민국 가구 대·중소기업 공급자 박람회’, ‘한국가구학회 국제학술세미나’ 등 부대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입장료는 5000원이다. 무료관람을 원하는 관람객은 28일 오후 12시까지 코펀(KOFUR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관람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김계원 회장은 “참여업체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국내외 비즈니스 구매담당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KOFURN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길잡이 역할을 다해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에게까지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카페인 없이 비타민B 듬뿍 ‘XS 에너지 캔디’

한국암웨이 간편하게 에너지 충전

한국암웨이의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 XS(엑세스)가 2030세대를 겨냥한 신제품 ‘XS 에너지 캔디(사진)’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XS 에너지 캔디’는 3가지 비타민 B군인 나이아신, B6, 판토텐산을 함유하고 있어 간편하게 에너지를 더할 수 있다. 비타민 함량 또한 식약처 고시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50%를 함유하고 있으며, 카페인 함량은 포함하지 않아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또한 2030 세대의 취향에 맞춰, 트렌디한 디자인의 패키지와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아 한국암웨이 마케팅 상무는 “XS는 암웨이의 브랜드 중 가장 젊고 활동적인 브랜드로, 건강과 미용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에 부합하는 제품



들을 개발하고 있다”며 “XS 에너지 캔디는 사탕 제형으로 비타민 B를 섭취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이며, 시험 전 집중력이 필요할 경우나 운동시 간편하고 재미있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은 2030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암웨이 XS는 음료 외에도 다양한 신제품을 통해 2030을 위한 제품군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에너지 너츠, 고메 셀렉션 등 휴대가 가능한 견과류 제품도 출시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대우위니아 미니어처 콘텐츠로 SNS 젊은층 공략

대우위니아가 2030세대를 겨냥해 SNS에 최적화된 미니어처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대우위니아는 공식 SNS 계정인 ‘위니아스토리(winiastory)’를 통해 초소형 미니어처를 위니아 에어컨과 위니아 크린세탁기, 덤채룩(밥솥) 등 대우위니아 제품에 붙인 콘텐츠를 선보였다.

김치냉장고 덤채로 주부들에게 친숙한 대우위니아는 이번 미니어처 콘텐츠를 통해 SNS 이용률이 가장 높은 젊은층을 겨냥했다.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미니어처 모티브를 활용해 2030세대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여기에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가전제품을 가볍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더해 소비자의 친근감을 더하며 가전업계 SNS 트렌드를 주도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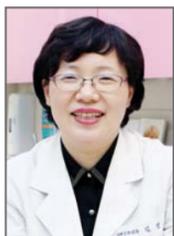
세계조산학회 서울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 주관

세계조산학회(PREBIC) 아시아-오세아니아 지부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조산학회는 2003년부터 시작돼 매년 세계 관련 의사 및 과학자들이 모여 조산의 원인,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연구하는 학회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사진)가 지난 2017년 9월 중국 하이난에서 세계 조산학회 아시



아·오세아니아 지부 회장에 선출돼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주관하게 됐다.

이번에 개최되는 국제 심포지엄에는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인도 등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산부인과 의사 및 과학자들 150여 명이 모여 조산 연구의 최신 지견 공유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바탕으로 향후 조산의 예방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계산대 없앤 ‘스마트 점포’ 가서 신개념 쇼핑하자”

(이마트 에브리데이)

삼성동점 ‘스마트 점포’ 리뉴얼 오픈
썬페이 활용한 논스톱 쇼핑환경 제공
현금없는 결제방식으로 효율성 높여



이마트 에브리데이 삼성동점.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 점포’를 선보인다.

이마트는 17일 이마트 에브리데이 삼성동점을 리뉴얼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64평 규모의 기존 에브리데이 점포를 스마트 점포 형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스마트 점포는 최신 디지털 혁신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결제방식과 운영방식을 적용한 미래형 매장으로, 고객이 더 쉽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매장을 목표로 한다. 가장 큰 특징은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현금이 필요 없는’ 신개념 결제 방식인 ‘스마트 쇼핑’을 개발해 도입했다는 점이다.

스마트 쇼핑은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간편결제서비스 썬페이(SSG PAY) 앱을 활용해 고객이 물건을 고르는 동시에 결제까지를 통해 한번에 진행하는 논스톱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기존에 썬페이가 일반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을 대신하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스마트 쇼핑은 썬페이 앱의 기능을 확장시켜 상품을 스캔하고 지불 금액을 합산 하는 등 계산대의 기능을 추가했다.

썬페이가 설치된 모바일 기기 자체가 계산대 역할까지 맡은 만큼, 과거 고객들이 계산대를 이용 하기 위해 소비하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대면 서비

스를 기피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도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방식의 변화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새로운 결제방법 도입으로 인해 출구 역할을 하던 계산대가 사라진 만큼 바코드 인증이 필요한 스피드 게이트를 스마트점포 출구에 설치했다.

스피드 게이트 이용을 위해 필요한 바코드는 썬페이 앱 혹은 셀프계산대를 이용해 결제한 고객의 경우 앱 혹은 영수증에 자동 발급되며, 비구매 고객은 앱이나 무인계산대를 이용해 퇴장전용 바코드를 발급해 이용 가능하다.

앱 이용이 어렵거나 모바일 기기를 소지하지 않은 고객은 셀프 계산대(Self Check Out)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했다.

결제 방법 이외에도 스마트 점포에서는 전자가격표시기(ESL)와 종이 POP를 대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담았다.

상품 가격이나 프로모션 내용과 같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정보를 안내

하는 쇼카드(가격표)와 접내 고지물을 중이에서 디지털 장치로 변경함으로써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전반적인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이다.

더불어 편의형 HMR 상품을 동일 규모 점포 대비 20% 가량 확대하고, 신선식품의 경우는 규격팩을 이용한 소포장 제품으로 변경하는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차별화 상품들도 준비했다.

이태경 이마트 에브리데이 대표는 “이번에 선보이는 스마트 점포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유통현장에 적용 가능한 미래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한 결과물”이라며 “고객들이 쉽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이미지에 중점을 둔 만큼 새로운 쇼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스마트점포 이용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준비했다. 매월 스마트점포에서 썬페이를 통해 2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썬머니 2000원을 증정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TV쇼핑, 업계 첫 오프라인 매장 선택

S STYLE SHINSEGAE TV SHOPPING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편집숍 오픈
‘S-STYLE’ 방송 재현해 온·오프 연계

신세계TV쇼핑이 T커머스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고 명품 전문 방송 ‘S-STYLE’을 더 생생하게 선보인다.

신세계TV쇼핑은 오는 18일 신세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S-STYLE by SHINSEGAE TV SHOPPING’(159㎡/48평형)이라는 이름으로 ‘S-STYLE’ 방송을 재현한 명품 편집숍을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S-STYLE’은 지난해 10월 런칭한 신세계TV쇼핑의 명품 전문 방송으로, 명품 전문 쇼호스트인 정예진 쇼호스트를 중심으로 매주 다양한 브랜드의 명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알렉산더맥퀸 클러치와 스니커즈, 골든구스 슈퍼스타 스니커즈, 발렌티노 언타일스 스니커즈, 펜디 닷깅백 등 인기 명품 브랜드 상품들을 완판시키며, 매 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신세계TV쇼핑은 ‘S-STYLE’ 방송상

품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매장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S-STYLE’ 매장에서는 구찌, 보테가 베네타, 알렉산더맥퀸 등 방송 판매를 통해 선보이는 유명 명품 브랜드 상품들은 물론,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소량 소싱한 상품 또한 만나볼 수 있다.

유럽을 대표하는 해외 명품 잡화는 물론,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 의류, 머플러, 슈즈 등도 함께 선보이며 더욱 다채로운 쇼핑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신세계TV쇼핑이 직접 기획한 PB상품을 비롯해, 수입가전, 수입주방용품 등 트렌디한 해외 리빙 상품도 소싱해 토탈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강명란 신세계TV쇼핑MD전략팀장은 “신세계TV쇼핑의 대표적인 인기 방송 ‘S-STYLE’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재현해 고객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고자 한다.”며 “T커머스 업계 최초인 만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들을 고객들에게 선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저칼로리 건강도시락, 구매자 절반 2030 여성

GS25

두부스테이크·닭가슴살 도시락 등
영파워·오피스 상권서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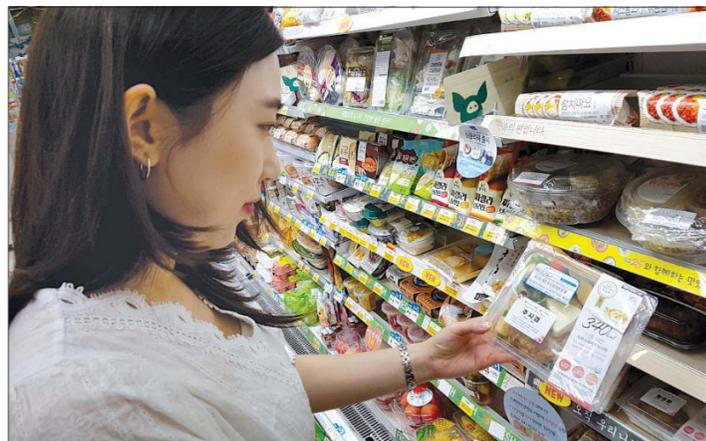
20~30대 여성들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저칼로리 건강식 도시락의 절반 이상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25는 16일 저칼로리 건강식 도시락 구매의 절반에 육박하는 47.9%를 20~30대 여성이 소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도시락 매출은 2,30대 남성이 40.2%를 차지하고 있었다.

GS리테일 데이터경영팀은 전국GS25 상권 유형 중 저칼로리 건강식 도시락이 특히 잘 팔리는 상권 유형을 도출했다.

전국 GS25 편의점들을 13개 상권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야간 20대 인구 구성비가 많은 영파워 상권, 여성 직장인 상권, 오피스 상권에서 건강식 도시락의 매출 구성비가 57.9%였다. 해당 3개 상권 유형의 점포 구성비가 전체 13개 상권 유형 중 26.3%라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GS25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건강식 도시락 판매 중점 상



GS25를 찾은 고객이 두부스테이크 도시락을 고르고 있다.

/GS리테일

권을 선정했고, 이와 별도로 관련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신제품은 ‘유어스 두부 스테이크 도시락’(이하 두부스테이크 도시락)이다. 건강 중시형 고객들을 겨냥해 출시된 이 제품은 340Kcal의 낮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포만감과 함께 맛까지 고려해 완성됐다.

저칼로리 콘셉트의 도시락답게 튀김이 아닌 찜, 구이로 모두 가공되며, 두부스테이크에 돼지고기와 토마토 소스

를 가미해 맛을 살렸다. 또 구운 파프리카, 구운 호박, 허브 감자, 혼합 야채 찜, 화이트 오믈렛, 바질페스토 펜네, 올리브 등을 사이드 메뉴로 곁들였고, 저탄수화물 식이를 위해 현미밥 50g에 슈퍼푸드인 렌틸콩을 올렸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은 두부스테이크 도시락과 GS25 나만의 냉장도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 주문이 가능한 도시락 중 부동의 1위인 유어스 닭가슴살 도시락으로 총 2종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루이까또즈 ‘레더리빙 소품’ 라인업 첫 선

프리미엄 가죽을 리빙소품으로 만나

루이까또즈의 프리미엄 가죽을 이제 리빙 소품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루이까또즈는 고품질 천연가죽 소재를 사용한 리빙 제품 라인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루이까또즈의 감성이 담긴 레더리빙 소품 라인업은 수공예 방식으로 제작되며, 제품은 모두 루이까또즈 핸드백 소재 등에 사용하는 최상급 가죽으로 만들어져 부드러운 질감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기본 종류는 트레이, 티슈케이스, 펜케이스, 와인케이스, 컵받침, 슬리퍼, 다이



어리, 마우스패드 등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22개의 상품군으로 구성됐다. 루이까또즈는 이번 레더리빙 소품 출시와 함께, 공예 디자이너 브랜드 ‘시아나(syana)’와 함께 하는 콜라보레이션 제품 26종도 추가로 출시하고 한정 판매한다. /김민서 기자

‘갈색’ 립 컬러 잘나간다… 매출 상위권 차지

탈라블라 틴트 매출 1~5위

갈색이 섞인 립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H&B스토어 탈라블라(구 왓슨스)는 지난 5월부터 8월 현재까지의 립 제품 카테고리 매출을 분석한 결과, 브라운컬러의 틴트 매출이 1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탈라블라의 컬러메이크업 립제품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립글로스에 해당하는 틴트류로 립스틱보다 부드럽게 바를 수 있고 발색이 뛰어나다.

색상 별로 살펴보면 오렌지와 레드의 기본 색상에 노란 빛의 브라운컬러가 섞

인 오렌지브라운과 레드브라운, 붉은기가 도는 채도 높은 벽돌색이 더해진 브릭레드와 브릭로즈 등의 브라운 색상 제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특히 브라운컬러는 노르스름한 동양인 여성의 피부에 잘 어울리며, 따뜻한 느낌의 연한 오렌지브라운부터 짙은 다크브라운, 레드브라운 등 다양한 컬러 중 피부톤에 맞게 골라 사용할 수 있다.

탈라블라에서 5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빠이’의 ‘라스트 벨벳 립 틴트 다정보스’로, 입술에 밀착되는 벨벳 질감에 따뜻한 오렌지브라운컬러다. ‘릴리바이레드’의 ‘양클라이어 코팅



고객이 탈라블라 매장에서 빠이의 브라운컬러 립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탈라블라

틴트 성숙한체리인척’이 뒤를 이었다.

/김민서 기자

LGD 대학생 블로그 누적방문 1111만명 돌파

'D군의 This Play' 선물 이벤트 진행

LG디스플레이는 공식 대학생 블로그 'D군의 This Play'가 개설 8년만에 누적 방문자 1111만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지속적인 글로벌 1등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숫자 1과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한다. 누적 방문자가 1111만 1111명을 돌파한 시점부터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댓글 1111개가 달리면 111명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D군의 This Play는 대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콘텐츠로 운영되는 블로그로 디스플레이 관련 IT트렌드는 물론 LG디스플레이 조직문화와 채용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내고 있다.

어려운 디스플레이 전문 지식을 대학생의



대학생 운영진들이 최신 디스플레이를 통해 IT정보들을 살펴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높이로 쉽게 설명해 LG디스플레이 입사를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실제 2018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한 사무직을 대

상으로 한 설문에서 약 98%가 'D군의 This Play'를 참고해 취업준비를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14일 경기도 용인 청덕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에 방문해 소름과 시험실을 둘러보며 자동차에 적용된 기술들을 직접 확인하며 신기해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전국 사업장 '살아있는 과학교실'로

현대모비스가 전국 주요 사업장을 이용해 초등학교생에게 기초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교실을 진행한다.

현대모비스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인 '주니어 공학교실' 참가 학생들을 전국에 있는 주요 사업장에 초청해, 현장 견학과 과학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12개 초등학교 400여명 초등학교생과 교사가 초청 대상이며, 이번 주에 전국의 주요 사업장별로 하루 일정으로 각각 진행하고 있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기초적인 과학 원리들이 어떻게 실제 기술로 구현되는지 실습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초등학교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현대모비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현대모비스 연구원이 전문 강사로 참여하며, 매달 전국 사업장 인근의 초등학교를 방문, 별도 제작한 교보재를 이용해 관련 기술이 적용된 미래 자동차 모형을 직접 제작한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이동과학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주니어 공학교실'로 전국의 초등학교로 혜택을 넓혔다. 올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형자동차 제작을 교육하는 '현대모비스 청소년 공학 리더'도 새롭게 개최하는 등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양성문 기자 ysw@

롯데멤버스 고객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롯데멤버스는 AI 어플리케이션 그룹 마이셀럽스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음성 기반의 AI 큐레이션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L.POINT(이하 엘포인트) 회원들은 음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말해' APP과 라이프스타일 포털 '익사이팅 L'을 통해 개인 취향별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통일로에 위치한 롯데멤버스 본사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및 빅데

이터를 활용한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제공' 업무협약식에는 롯데멤버스 강승하 대표와 마이셀럽스 신지현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이셀럽스는 이미 자체 AI 솔루션인 '빅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 업계 선두 기업과의 AI Transformation 제휴를 이끌며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롯데멤버스는 본 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검색 기술을 통해 회원들



롯데멤버스 강승하 대표(사좌)와 마이셀럽스 신지현 대표(우)가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롯데멤버스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멤버스

에게 취향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운세

8월 17일 (음 7월 7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자손이 새 인연을 데려오니 기쁘다. 60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었으니 뜻한 바를 무사히 달성. 72년생 격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84년생 시간은 금이니 허비하지 말고 활용을 잘 해야 한다.

소 49년생 야릇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61년생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을 편하게. 73년생 마음이 우울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85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호랑이 50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62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 하면 원망을 듣게 된다. 7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 86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뎌라.

토끼 51년생 속이 상해도 내 자식이나 어쩌겠나. 63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치는 날. 75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이다. 87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조심.

뱀 52년생 인맥을 이용하여 이로운 정보를 얻는다. 64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지 못한다. 76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살임을 명심. 88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뱀 53년생 파란색, 숫자 1이 오를 행운을 준다. 65년생 달빛이 찬란하니 좋은 옷을 입고 나가 본다. 77년생 고집을 피우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 89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말 54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66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78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한 하루. 90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나의 단점도 드러난다.

양 55년생 들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라. 67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을 처리. 79년생 낙숫물에 비위가 돌리는 법이니 부단한 노력이 중요. 9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우니 날.

원숭이 56년생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라. 68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안 가는 것이 좋다. 80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다. 92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

닭 57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이니 서글퍼 마라. 69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81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이나 영양섭취는 자제. 93년생 금전 문제로 가족 간의 의견충돌을 주의.

개 58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70년생 입으로라도 웃으면 화가 물러날 것이다. 82년생 기대하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94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동임을 명심.

돼지 59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피라. 71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좀 지체. 8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참아야 한다. 95년생 머리만 믿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4	7	5
7	6			9			1	
	3	4			2	6		
8			9		3			4
			6	8			1	2
	9		4					6
1	4	7						
			2					

		1				7		
	5		4			7		6
		8		2		4		
	8		1		2		3	
5				4				1
	1		5		6			8
		2		6			1	
	6			9		1		4
		9					8	

스도쿠 정답

2	7	6	1	2	8	5	9	
2	8	9	6	5	2	7	1	
1	9	5	2	8	7	2	6	3
3	2	1	7	5	8	9	2	6
7	5	2	8	9	6	1	2	8
6	8	9	2	1	7	5	8	3
8	1	8	6	7	2	5	9	2
5	2	7	8	9	6	1	2	3
9	6	2	5	1	2	8	7	3
9	2	8	5	2	7	6	7	1
2	7	8	1	8	6	5	9	2
6	5	1	7	9	2	2	8	3
2	8	2	9	6	5	7	1	5
1	6	9	8	7	8	2	2	5
7	5	2	2	1	9	8	6	3
5	1	7	6	2	8	2	9	2
8	9	6	2	1	7	8	5	2
8	2	1	8	5	9	1	6	7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 四季

사주에 절기가 있다

요즘처럼 유례없는 폭염으로 한반도가 뜨거워 열섬이 되어가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맞물려 이상고온으로 적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날씨가 바뀌는 차량의 증가와 운행은 대기 중으로 뜨거워 열기를 밤낮으로 내뿜고 화학재료인 아스팔트로부터의 지열은 실제 온도보다 더 높은 폭염을 선사하고 있다. 이렇듯 여름나기에 각별히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 더워도 그 뜨거워 햇살을 자랑분으로 삼아 과실은 더욱 달콤하게 농익고 벼와 곡식들은 알곡을 튼 실히 채운다. 여름이 오히려 덥지 않고 시원하다면 인간들의 여름나기는 수월할지 몰라도 그 해는 냉해로 인해 과실과 여러 작물의 풍작을 기대하진 그러다. 풍성한 가을을 위한 통과리엔 것이다. 더불어 더위에 맞설 것이 아니라 해가 강한 낮에는 외출이나 밭일 등 야외 일을 삼가면서 무리한 운동과 생각을 쉬는 것도 폭서를 피하는 지혜이듯 이런 생각으로 삶에 대처한다면 어려움도 분명 반감될 것이다. 굳이 뜨겁고 열기 많은 때 밭일을 하다 열사병에 걸려 허약한 사람들은 유명을 달리는 경우도 있다. 덥다고 무조건 차가운 음식만 찾다가 배탈이나 설사로 인해 몸을 상하거나 덥다고 바닷가를 찾아 해산물을 즐기다 상한 생선이나 조개류를 잘못 섭취해 패혈증과 같은 질병으로 졸지에 목숨까지 잃는 경우를 보면 더위에 임하는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해지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열치열이라는 방법으로 한 여름의 건강을 지켜주는 식생활 풍습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겠는가? 인생도 마찬가지로. 사람살이도 한 여름 폭염처럼 한 겨울 혹한처럼 견디기 힘들고 모질 때가 있다. 사주팔자의 구성 자체가 좋다 해도 반드시 어려운 때가 한 두 번쯤 운기에 섞여 있음을 분명하게 된다. 전체 사주가 안 좋은 기운이 강하더라도 어느 한 때는 살만한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좋고 안 좋은 때를 제대로 살필 수 있다면 마치 한 여름의 폭서도 조심하고 경계하면 몸과 마음을 상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듯 인생의 길에 굴곡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겸손과 인내로 견뎌낼 때 오히려 흉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게 마치 뜨거운 열기가 과실을 익게 하여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름이 덥지 않으면 오히려 냉해로 재앙이 되고 겨울이 춥지 않으면 다음 해 병충해가 심해지듯 특이한 인생의 길은 절기가 있기에 고난이 반드시 고난이 아닌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깨진 치아도 다시보자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건강한 치아는 오복(五福) 중 하나라는 말 처럼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따라 치아수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치과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게 대부분 치아에 이상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한 치아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아에 금이 가거나 깨진(파절) 경우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염증이 심해져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최악의 경우 잇몸 뼈가 녹아내려 인공치아를 심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

파절된 치아는 파손 정도와 위치, 신경 및 뿌리 손상유무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며, 앞니의 경우 신경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레진이나 라미네이트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앞니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미네이트는 인조손톱과 같은 세라믹을 치아 표면에 붙여주는 치과보철의 한 과정으로 치아의 삭제량이 적고,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해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다. 시술기간은 치아를 다듬고 본을 떠 붙이기까지의 과정이 있어 2~3 정도 방문하면 되며, 삭제한 면은 불소도포와 연마를 통해 충치 발생 우려도 줄여준다.

다만 신경이 노출되었거나 어금니가 파절된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보다는 크라운과 같은 단단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금니는 치아 중에서도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며, 크라운을 씌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아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 깨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충치가 심하면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치아의 신경을 최대한 보존해주는 신 물질(MTA)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좋은 치료 예후도 다수 보고되고 있으니 의사의 판단 하에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된다.

이밖에도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선 음식 섭취 후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치간 칫솔 및 치실 사용을 병행하여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관 선택 역시 매우 중요한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병원의 유명세나 저렴한 치료비용에 현혹되기 보다는 ▲상하가 자주 바뀌는 곳은 아닌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인지 ▲상담의와 수술집도의가 동일인지 ▲해당 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인지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줄 수 있는 병원인지 ▲상담실장이나 병원 코디네이터가 시술부위 및 치료비용을 결정하는 곳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치과전문 의 민음신치과 원장



예탁원, 몽골 예탁결제회사와 MOC 체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예탁결제회사(MCSD)와 국경 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개발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이사가그와 몽골예탁결제회사 사장(왼쪽 첫번째), 정재남 몽골 주재 한국대사(세번째) 등과 지난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예탁결제회사와 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학습멘토링 '영어학습지원' 캠프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4박5일간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5~6학년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멘토링 '영어학습지원' 캠프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에게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KB국민은행

정통부-방통위, 줄다리기 언제까지?



기자 수집
김나인
(산업부)

“국가고 기업이고 성장 정체에 빠졌는데 미디어, 콘텐츠 등 그나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에서 힘겨루기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답답합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콘텐츠 업계 관계자가 토로한 고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엇박자’가 급변하는 방송·통신업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인은 융합이 대세인 방송과 통신 환경과 달리 정책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견제가 우선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 정권 때 정책이

이원화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당시에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고 통합적인 정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산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극적인 조직개편으로 ‘이름 바꾸기’에만 개편이 그쳤다.

최근에는 두 부처의 엇박자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도 했다. 지난달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기준 점수 이상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를 거부하는 조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방통위가 SO 재허가 동의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출범 1년을 맞은 4기 방통위는 1년 간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과기정통부와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이 이원화돼 이중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

적이다. 실제 방통위가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중편)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규제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다.

새로 등장해 미디어 시장을 위협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특성이 기존 미디어와 다르지만, 기존 칸막이 규제로는 대응할 길이 막막하다. 페이스북의 망사용료를 둘러싼 인터넷 기업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기능중복으로 책임소재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 설립이 떠오르고 있다.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제 기구로, 미디어의 규제와 진흥을 한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어떤 대안이든 현재 이원화된 정책 구조를 타파할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중간에 끼어 있는 방송·통신 사업자들만 답답한 노릇이다. /silki@metroseoul.co.kr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처실장급 전보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 전략실장 오형완 △기획조정실장 기노선 △경영지원처장 안병희 △재무관리처장 최주환 △정보전략실장 임재형 △비축사업처장 강계원 △수출전략처장 이필형 △수출사업처장 박민철 △식품산업처장 정성남 △유통조성처장 백대근 △사이버거래소장 윤

영배 △화훼사업센터장 이문주 △감사실장 신현근 △서울경기지역본부장 김정옥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형목 △아세안지역본부장 겸 하노이지사장 김창국 △부장급 전보 △사회기차출발부장 박근식 △인사부장 성시찬 △기금관리부장 민경후 △비축관리부장 박재형 △품질안전부장 김동우 △미곡부장 및 가공유통제도개선TF팀장 김기봉 △식량지원부장 및 해외원조상황실반장 장재형 △수출기획부장 심화섭 △시장다변화부장 노태학 △수출농가지원부장 이원기 △농산수출부장 이성복 △식품수출부장 황도연 △수산인산수출부장 김석주 △마케팅지원부장 정연수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장 구자성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부장 양재준 △산시시설부장 김동욱 △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지원부장 김기현 △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운영부장 이영철 △농식품유통교육원 유통연구소장 조창익 △화훼사업센터 화훼기획부장 손용규 △감사부장 김상백 △인천지역본부장 권오훈

교육기획과장 박미영 ◇과장급 승진 △상표심사3과장 임기훈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동원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내한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지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연구장비개발본부 국산장비신뢰성평가센터장 박찬수 △환경·소재분석본부 지구환경연구부장 최정현

◆케이프투자증권 △신규 선임 △법인영업팀장 이인현

부음

▲오연자씨 별세, 이매경(기업은행 경동·강원지역본부장)·동원(공군 준장)·종원(서강대학교 노조위원장)씨 모친상, 류금숙·최선화씨 시모상, 천상희(머니투데이 편집위원)씨 장모상=1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8일 낮 12시, 02-3410-6917

▲양정연씨 별세, 김창영(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씨 모친상, 김혜승(따뜻한손 출판사 대표)씨 시모상, 김정민(전경련 선임연구원)·선필(IBK기업은행 과장)씨 조모상=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2-2072-2027



우리銀, 캄보디아서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

우리은행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14일까지 6박 7일간 캄보디아에서 '2018년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문화자녀 글로벌 문화체험단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씨엠립 지역 명소를 찾아 역사·문화·생태를 탐방했으며, 지난 6월 우리은행이 인수한 WB파이낸스 견학을 통해 캄보디아와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은행



롯데홈쇼핑, 2018고객평가단 발대식 진행

롯데홈쇼핑은 지난 14일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고객들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2018 고객평가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올해는 기존 설문조사 등의 온라인 중심 고객평가단에서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대해 '고객 모니터링 평가단' 1기를 출범한다. 이들은 방송, 주문, 배송, 사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의견을 제안하게 된다. /롯데홈쇼핑



샘표, 우리맛 연구 멘티 모집

샘표가 우리맛 연구를 함께 할 멘티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샘표는 획일화돼 가는 현대의 식생활 속에서 우리맛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우리맛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샘표 우리맛 연구 멘티'는 요리 테스트, 연구기획 등 두 개 분야에서 5명을 선발하며, 지원은 경력, 학력 상관없이 우리맛 연구 및 우리 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22일까지 샘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샘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2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25호

수도권 간호학과 노린다면 '학종'

(학생부종합전형)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⑩ 간호대학

정시모집 수능 반영 비율도 따져야
115개교서 정원내 총 9680명 선발
전문대도 81개교는 4년제 과정 모집



오중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

(2019 전국 일반간호학과 모집정원)

구분	수시			정시	합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전국 (115개교)	5,236 (54.1%)	1,694 (17.5%)	238 (2.5%)	2,512 (26.0%)	9,680
서울 (12개교)	203 (19.9%)	366 (35.9%)	160 (15.7%)	290 (28.5%)	1,019

형(학생부종합)으로 21명, 일반전형(학생부종합) 32명, 정시 가군에서 10명을 선발한다.

연세대 간호학과는 수시 면접형(학생부종합)으로 10명, 활동우수형(학생부종합) 25명, 기회균형(학생부종합) 2명, 정시 나군에서 36명(인문 20명, 자연 16명)을 선발한다.

고려대 간호학과는 수시 일반전형(학생부종합)으로 20명, 학교장추천I전형(학생부교과) 6명, 학교장추천II전형(학생부종합) 18명, 사회공헌자II전형(학생부종합) 1명, 정시 나군에서 15명(수능 중심)을 선발한다.

가톨릭대 간호학과는 수시 논술전형으로 22명(인문 11, 자연 11), 학생부교과전형 26명(인문 13, 자연 13), 정시 나군에서 32명(인문 16명, 자연 16명)을 선발한다.

전문대학 간호학과는 모집 시기별로 모집총원 1만 4천 971명을 수시1차 모집으로 9천 133명, 수시2차 모집 2천 865명, 정시모집에서 2천 973명을 선발한다.

서울여자간호대 230명, 삼육보건대 137명, 서일대 130명 등 81개교는 4년제 과정, 광양보건대, 국제대 간호과는 3년

제 전문학사 과정으로 모집한다.

일반대학 학생부 중심 전형의 경우에도 전년도 수시 합격자 평균 교과 성적을 보면, 서울 소재 대학이 대체로 1.2등급에서 1.9등급, 경기 및 인천 소재 대학이 1.4등급에서 적어도 3.6등급 이내 정도이며, 지방 소재 대학들도 대체로 2등급부터 4등급 이내임을 참고하여 지원한다.

다만,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교과적성 우수자 전형은 가천대 합격자 70% 컷이 2.8등급, 을지대(성남) 합격자 평균 3.3등급, 삼육대 70% 컷 4.0등급 정도로 내신에 비하여 적성고사의 변별력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유의한다.

중앙대,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고려대, 부산대, 인하대 학생부교과 전형과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등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므로 이들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수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학에 따라서 간호학과는 대체로 인문, 자연 통합 선발을 하지만, 가천대(수시), 가톨릭대, 강원대, 경희대, 부산대, 성신여대(정시), 연세대(서울, 원주), 중앙대, 한양대 등은 인문·자연 계열별로 분리하여 선발을 하므로 참고하여 지원한다.

카이스트 연구진

내시경수술 로봇, 돼지 담낭 절개 성공

카이스트 연구진이 원격 내시경수술 로봇을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의 담낭을 절개하는데 성공했다.

카이스트는 기계공학과 미래의료로봇 연구단이 개발한 유연 원격 내시경수술 로봇 '케이-플렉스'가 지난 달 17일 돼지 담낭 절개 수술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연성 내시경 시장의 활성화와 암 치료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플렉스는 입, 항문, 요도 등 우리 몸에 있는 통로를 따라 이동하며 몸속을 관찰하는 로봇이다. 조직에 이상이 있으면, 초소형 로봇 팔이 나와 수술을 진행한다.

연구진은 돼지 배의 표면에 만든 절개 부위에 케이-플렉스를 삽입해 질병부위 인근의 담낭으로 로봇을 접근시켰다. 내시경 로봇에서 나온 지름 3.7mm의 소형 수술도구가 간을 찢어 수술을 위한 시야를 확보했다. 이어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



K-FLEX를 조종기로 조작하는 모습. /카이스트

간과 담낭 사이를 절개했다.

수술은 연구팀이 내시경 앞부분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신체 내부를 모니터링하며 원격 조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를 총괄한 권동수 교수는 "이번 실험은 국내 최초로 유연한 내시경로봇을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의 담낭을 절개, 임상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문제유출 의혹' A고 특별감사

서울시교육청이 보직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구 A고등학교에 대해 16일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본청 감사관실 직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은 이날 오전 A고를 찾아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팀은 현재 논란인 문제유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이 학교 내신시험 관리와 성적처리과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살펴 예정이다.

감사팀 관계자는 "앞서 특별장학 결과와 무관하게 사회적 논란이 크고 학교도 감사를 요청해 감사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작년 1학기 이후 치러진 모든 시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 감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고는 보직부장 교사 B씨가 이 학교 2학년인 쌍둥이 딸들에게 미리 시험문제를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A고에 대해 특별장학(조사)을 실시한 바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는 쌍둥이 딸들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점과 이들이 유명 수학교학원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다니는 반에 속했다는 점, 수학 시험에서 같은 답을 적어낸 적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의혹이 확산하자 B씨는 "딸들 성적이 1학년 1학기 121등과 59등이었다가 같은 학년 2학기 5등과 2등으로 올랐다"며 올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또 "(시험문제에) 유일한 접근은 결재를 위해 오픈된 교무실에서 약 1분 정도 이원목적분류표와 형식적 오류를 잡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목적분류표에는 각 문항이 평가하고자 하는 바와 배점, 정답 등이 담겨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사 부모와 학생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청원게시판에는 이러한 취지의 청원이 올라와 16일 오전 9시까지 530여명이 동의했다. /한용수 기자 hys@

중앙대 등 11개교, 220억 혁신지원 받는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8년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대상 11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5개 권역에서 2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학교별로 2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국민대와 성균관대, 중앙대가,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강원대와 대구한의대가, 충청권에서는 대전대와 충남대가, 호남·제주권에서는 전주대와 호남대가,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경성대와 동아대가 선정됐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학교의 증장기적 특성화에 따른 발전전략이 아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예비 선정대학 명단)

/자료=교육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	충청	호남·제주	부산·울산·경남
국민대, 성균관대, 중앙대	강원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충남대	전주대, 호남대	경성대, 동아대

닌 개별 사업에 맞춰 추진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했다. 내년부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학교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 ▲대학혁신전략 ▲종합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의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최종 선정 여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부는 시범사업 선정대학의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해 내년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대학 자율성 확대와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지원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해 하반기에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통해 대학이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ki@

서울대 김형숙 동양화과 교수

한국미술교육의 지평 출간

서울대학교는 김형숙(사진)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가 '한국미술교육의 지평'을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미술교육의 지평은 한국의 근·현대 역사에서 두드러진 이슈를 미술교육의 맥락에서 해석한 연구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현대미술교육의



시발점은 8·15 해방 이후의 시기"라며 "당시 우리나라에 미술대학이 설립되었고 미국에서 영향받은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이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책은 한국전쟁 시기에 빠라와 같은 시각 이미지에 재현된 이데올로기 전쟁의

성격을 파헤친다. 아울러 한국전쟁기에 국가, 반공, 기술이라는 핵심어로 구성된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정책을 다룬다. 김 교수는 1954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 시기의 미술교육을 오늘날 우리 미술교육의 현주소로 보고 있다.

김 교수는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에 민중미술 운동은 연결되지 않았지만, 민중미술의 시민 미술교육 활동은 오늘날 우리나라 공동체 미술교육의 현대적 시원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건국대 학생들, 충주 교현천 벽화그리기 봉사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디자인마미디어 전공 학생들이 충주 성내충인동 교현천 벽화 그리기 봉사를 실시했다.

벽화는 지난해 관아골 벽화 프로젝트에 이어 학교와 성내충인동이 협력한 두 번째 사업이다. 이번 벽화 봉사에는 디자인마미디어 전공 2학년 수업인 '미디어 콘텐츠드로잉' 학생들과 미디어학부 1학년, 디자인학부 1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충주시 문화회관 인근 교현천 200m 구간에 벽화를 그렸다. 벽화 사업은 성내충인동 새마을협의회가 도민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올해 2월 주민센터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고, 4~6월 박성연 교수와 학생들이 답사-기획-미그림-채색에 참여했다.

다이나믹미디어학과와 성내충인동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충주 성내충인동 교현천 벽화 모습.

/건국대학교

595만원

금강산 길목, 주말 예약 99% (2주전예약), 등기제분양

금강산 오션리조트 분양!

여름 성수기 선착순 예약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 숨쉬는 곳
 통일전망대·화진포·송지호와 금강산 비경을 간직한 곳
 하루를 머물러도 안락함을 느낄수 있는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 고성 실제 전경입니다.

분양특전

- 1) 연간 30일 사용
- 2) 전국 9체인 사용 가능
- 3) 주말예약 99% (2주전 예약시)
- 4) 하계 성수기 예약 접수중
- 5) 안전한 지분 등기제 분양

문의 : 02)541-0113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아시아 경제 신문 리조트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동해안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오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해 비치리조트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에서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수 있고 힐링 휴가를 즐길수 있는 동해안 휴양지로 거품을 뺀 가격에 분양중이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 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패밀러형 53㎡ 595만원, 스위트형 99㎡를 795만원, 로얄스위트형 165㎡ 1,395 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타업체와 비교해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 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구나 선착순 30

명에게는 무료숙박권 20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 한다니 관심 가질만 하다.
 또한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가능 하고 필리핀세부 일본 니가타 말레이시아에 골프와 리조트를 회원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오션 리조트는 100%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제로만 분양을한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직영 리조트인 동해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 외에도 도고나주 지리산 경주 설악 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과 즉시 가족 카드 5매가 발급 되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가입시에는 무기명 카드가 제공되어 사원 후생 복지로

사용가능 하다. 위치가 동해안 고성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 휴가시에 인기가 좋아 창을 열고 나서면 바닷가 백사장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분양 가격의 반값으로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별장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입금 선착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문의: 02)541-0113 신청금 50만원
 국민은행 469301-01-127-122 (주) 미봉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과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등기제로 분양합니다.



제주리조트

해발 3,000m 골프 라운딩



드라이버 거리 30 YARD 더 멀리!

옥룡 설산 골프 5일 179만원

(항공료, 식사, 숙박 2인1실, 그린피, 카트, 캐디피)

해외골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레이크 사이드 C.C 5일 135만원
 (항공료, 숙박 2인1실, 식사, 그린피, 캐디비, 미팅 센딩비)

<중국>

위해 호당가C.C 3일 599,000원
 (항공료, 숙박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전동카트)

겨울 성수기 조기예약 특가 / 조기 마감 주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9일 139만원
 (항공료, 5성급 호텔 2인1실, 식사, 그린피, 전동카트)

- <일본>
 아시아나 항공 이용
북해도 루스츠 4일 139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 카트피, 송영비)
니가타 청광아이즈 4일 119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석식, 그린피 + 카트피)
 라오항공 이용
라오스 부영C.C 7일 99만원
 (항공료, 리조트 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필리핀 클락 뉴아시아 7일 99만원
 (항공료, 리조트 2인1실, 조/석식, 무제한 그린피)
사이판 라오라오베이C.C 5일 85만원 ~
 (항공료, 호텔 2인1실, 조식, 그린피(노캐디), 전동카트)
 포함사항 : 골프 2회 (36H), 콘도 1박, 조식
국내골프 (7월말 ~ 8월 초 1박 2일)
 평창 휘닉스C.C 272,000원 ~
 용평 버치힐C.C 285,000원 ~
 해발 600m
 횡성 웰리힐리C.C 27만원 ~
 설악 썬밸리C.C 265,000원 ~
 원주 오크밸리C.C 27만원 ~
 여수 경도C.C 345,000원 ~

IL tour 02-541-4242

사우나 집에서 즐긴다

캐나다산 적삼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출용 국내 출시



5~6인용

원적외선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저온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2인용 290만원

전원 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농림, 캠핑 허우스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양평 전원 주택지



대지 66㎡ 건축 125㎡ / 매가 4억 9천만원 (2층 철골)
 대지 726㎡ 건축 125㎡ / 매가 4억 8천만원

<p>서종면 노문리</p> <p>7,723㎡ 12억</p> <p>3.3㎡ 48만원</p>	<p>서종면 수입리</p> <p>870㎡, 구옥 82㎡ (구옥)</p> <p>매가 : 395,000,000원</p> <p>3.3㎡/150만원</p> <p>즉시 신축 가능</p>
<p>옥천면 신복리</p> <p>대지 495㎡</p> <p>매가 : 175,000,000원</p> <p>3.3㎡/110만원</p> <p>토목공사 완료</p> <p>전원단지 주차 박스</p>	<p>서종면 노문리</p> <p>대지 300㎡</p> <p>매가 : 195,000,000원</p> <p>3.3㎡/100만원</p> <p>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p>

문의 02-543-1177

자카르타서 분 '남북 혼풍'... 6회 연속 종합 2위 노린다

2018아시안게임 D-1

우리나라 39종목 1044명 선수 참가
병역혜택 걸린 남자축구 시선집중
여자농구 등 남북 단일팀 구성 '관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오는 18일(한국시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2일까지 16일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 지역에서 개최된다.

아시안게임은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가운데 아시아지역 45개국 약 1만명의 선수들이 3주간의 일정으로 다채로운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39종목에 1044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6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축구와 농구 등 일부 구기종목들이 개막식 이전에 일찌감치 경기를 치른 가운데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15일(한국시간) E조 조별리그에서 6-0으로 바레인을 꺾었다.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U-23)은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손흥민, 조현우, 황희찬이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스타로 주목 받고 있고 이승우, 황희찬 등 경험 많은 젊은 선수로 구성된 역대 최고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자축구 조별리그 E조에 속한 한국은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반둥의 '시 잘락하루팟 스타디움'에서 17일(한국시간) 오후 9시 말레이시아, 20일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로라 봉 카르노(GBK) 농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A조 예선 남북단일팀 대 인도네시아의 경기. 현지 교민들이 한반도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서 단일팀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9시 키르기스스탄전 일정을 앞두고 있어 모두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국이 무난하게 E조 1위를 차지한다면 16강전은 일본 또는 베트남과 붙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 경기를 보는 데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의 병역 혜택이 걸린 남자축구의 우승 여부다. '아시안게임군 면제'라는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전력도 좋아 어떤 경기보다도 축구 경기가 이목을 집

중시키고 있다. 시범종목으로 이번 아시안게임에 선정된 e스포츠도 흥행 여부에 따라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지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팀은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2 종목에 출전한다. 최우범 감독과 김기인, 한왕호, 이상혁, 조용인, 고동빈, 박재혁 등 6명이 출전해 한국의 e스포츠 초대 챔피언 등극 여부도 기대되는 종목이다.

e스포츠처럼 이색 종목도 눈길을 끌고 있다. 그중 몸 대신 머리를 써야 하는 카드게임 '브리지'는 52장의 카드에 담긴 모양과 숫자를 보고 경위의 수를 계산하는



지난 15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로라 봉 카르노(GBK) 농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A조 예선 남북단일팀 대 인도네시아의 경기. 108-40으로 대승을 거둔 단일팀 선수들이 경기 종료 후 종합대회 단일팀 사상 첫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으로 81세 할머니 선수(말레이시아)가 출전하는 진풍경도 펼쳐진다. 6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지만 한국은 출전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패러글라이딩과 제트스키 등 레저스포츠도 이번 대회 정식 종목으로 합류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남북 스포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이 각각 출전해 경쟁하지만 여자농구, 카누, 조정 등 3개 종목은 단일팀 '코리아(COR)'가 구성돼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고수가 치는 북소리에 맞춰 10명이 한 배에서 노를 저어 속도경쟁을 하는 카누 드래곤보

트(용선) 경기도 남북 단일팀이 출전한다. 한편, 한국 여자배구는 김연경(30·터키 엑자시바시)의 합류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리고 있다. 특히 '배구 여제' 김연경의 라이벌로 성장한 중국의 주팅(24·터키 바키프방크)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해 김연경과 주팅의 맞대결은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배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중국은 국제배구연맹(FIVB) 랭킹 1위고 한국은 랭킹 10위다. 이번 대회 여자배구는 A, B조 1~4위가 8강에 진출해 크로스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지역 한복문화 발굴 나선 문체부

2018 한복 포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센터
'지역 한복문화를 말하다' 주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2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에서 '2018 한복포럼'을 연다.

'지역한복문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복 분야의 민간단체, 한복업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지역 한복문화 실태와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1부에서는 부산광역시의 '한복길 개발', 충청남도 서천의 '한산모시문화제' 등 국내 사례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복식 활용 우수 사례 등 해외 사례 발표와 정책 제안이 이어진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복 관계자 4명이 지역 한복문화 발굴을 위한 문화진흥정책을 토론한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에서 올해 신규 사업인 '2018 한복문화주간'을 소개해 한복 관계자들의 이해와 동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0월 15일~21일 전국에서 열리는 '한복문화주간'은 서울에 집중돼온 한복 문화 향유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지역의 한복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런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한복 관계자들의 소통과 연계망을 강화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aker@



노스페이스, 아시안게임 '팀코리아 단복 컬렉션' 출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공식파트너인 노스페이스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아시아경기대회의 개막을 맞아 '팀코리아 단복 컬렉션'을 출시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추첨을 통해 단복을 제공하는 기념이벤트를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진행하며 당첨자 중 일부에게 본인 이름의 미니설이나 코리아 등 특정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 커스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노스페이스

넥센타이어 KPGA 코리안투어 공식후원

넥센타이어가 국내 프로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KPGA 코리안투어 '동아회원권 그룹 부산오픈'을 공식 후원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경남 양산에 위치한 '통도 파인리스트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약 140명의 프로 골프 선수가 참가한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공식 후원을 통해 필드 내 홈, 페어웨이와 그린보드 등을 통해 브랜드를 노출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갤러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세인트나인' 골프공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영우 기자 yw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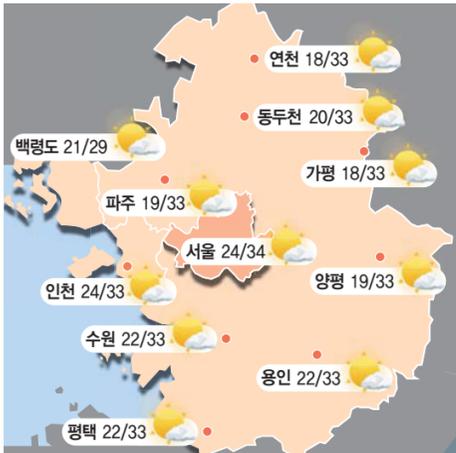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9 | 해질 / 19:23

8월 17일(금)
음력: 7월 7일

수도권 날씨
34~24°C

운동 지수: 4/5
빨래 지수: 4/5
세차 지수: 4/5
외출 지수: 4/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돌아온 류현진... 105일만의 복귀 '무실점 쾌투'

공격적 투구 속 볼넷 0개 기록

류현진은 16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삼진 6개를 뽑으며 3안타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았다. 투구수 89개를 기록한 류현진은 스트라이크 60개를 쫓는 공격적인 투구를 펼치며 단 1개의 볼넷도 허용하지 않았다. 최고시속은 149km에 이르렀고 빠른 공과 커터, 체인지업, 낙차 큰 커브를 자유자재로 던지며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봉쇄했다. 그러나 류현진은 0-0인 6회말 공격 1사 3루에서 대타 쪽 피더슨으로 교체됐다.

다저스는 피더슨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고 7회에도 2점을 추가, 3-0으로 앞서며 류현진이 승수를 추가하는 듯했다. 하지만 8회말 교체 투수 케일럽 퍼거슨이 동점 3점 홈런을 맞아 류현진의 승리가 날아갔다. 승리는 놓쳤지만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부상 전 2.12에서 1.77로 떨어뜨리며 견재함을 확실하게 알렸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진 이후 꼭 105일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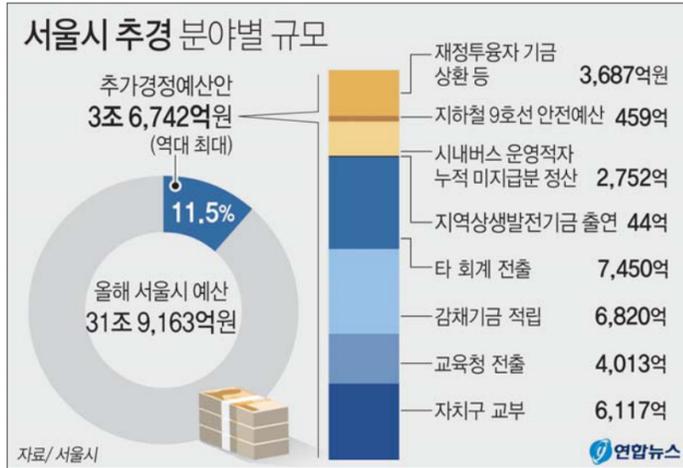
16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 선발등판해 투구하고 있는 류현진. /연합뉴스



/최규춘 기자

서울시, 추경 3조6742억... 일자리·민생경제 살린다

올 예산 32조의 11.5% '역대최대' 일자리 민생경제에 476억 지원
 유급병가 시스템 개발에 1.6억
 25개 자치구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직원 채용에 223억 편성



서울시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민생경제 살리기, 안전평등 실현 등에 방점을 둔 추가경정예산 약 3조670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16일 재정을 풀어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틈새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 삶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올 한해 서울시 예산(31조9163억원)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순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1000억원, 공정 지원 사업 감액 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8000억원을 활용한다. 시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민생 경제 ▲복지·주거 ▲건설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시민안전 ▲도시기반 등 5개 분야 262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시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34개 사업에 476억원 지원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50억원을 편성

해 목표 일자리를 기존 4655개에서 5405개로 확대한다. 자영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시스템 개발에 1억6000만원, '서울페이' 시스템 구축에 3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 보육을 메꿔줄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올해 25개 전 자치

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의 신규채용을 위해 22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촘촘한 복지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63개 사업에 1506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 192억원을 편성, 부양가족이 있지만 부양의사가 없어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 6000여가구에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공격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실현을 위해 748억원을 투입,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공급한다. 노후 버스교체에 76억원, 노인복지관 소방설비 보강에 131억원을 편성했다.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32개 사업에 1005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5000대를 추가 구입해 내년 말까지 3000만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 따릉이 1000대는 일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구릉지에 보급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시설개선에 18억원,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182억원을 투입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는 322억원을 투자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1개 사업에 1039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시설물 보수와 재해·재난 대비 소방시설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는 1693억원을 투입한다. 동북간선도로 확장공사,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안양교 확장 공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재 연구개발(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624억원을 편성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 투입해 시민 삶을 바꾸는 정책 확산에 초점을 뒀다"며 "내달 시의회에서의 결의되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개 도축 폐수 무단방류 업체 3곳 적발

서울 민사단, 대표 3명 불구속 입건 위반땀 사육·배출시설 폐쇄 명령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개 도축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 D모(60대)씨 등 3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D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를 도살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냈다.

이들은 개 농장이나 육견 경매소에서 개를 구입, 새벽 시간대에 개를 도축해 보신탕집과 계곡유원지 음식점 등에 판매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중 C업체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사육장에서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이 60㎡ 이상인 사육시설은 사전에 신고하고 적정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민사단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관할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육시설 사용중지 또는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아울러 시는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과 중구 중앙시장에서 개도축 행위를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전·폐업을 유도해왔다. 이를 통해 8개 업소 중 6개 업소가 폐업하거나 도축을 중단했다. 나머지 업소 2곳은 내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사단은 "개 도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옥상온도 10℃ 낮아지는 '쿨루프' 시공
 박원순 서울시장의 1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 옥상에 햇빛과 열 반사 효과가 있는 '쿨루프'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라오스 댐 피해복구에 5만달러 지원

서울시는 라오스 댐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재해구호기금 5만달러(한화 약 5668만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시장집무실에서 캄보디아 껌오달라봉 주한 라오스대사와 만나 지난달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긴급재해구호기금으로 5만 달러를 전달한다. 댐 사고로 현재까지 36명이 사망했고, 9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제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협력기금에서 매년 긴급구호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으로 지난해 9월 멕시코 대지진과 2016년 4월 에콰도르 대지진 등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도시를 지원해왔다.
 박원순 시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런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서울 시민의 작은 도움이 라오스에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한강 곳곳서 여름축제 즐기세요”

내일 '서울인기페스티벌' 개최 등 난지공원 등서 총 3개 축제 마련



서울인기페스티벌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7~19일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축제 3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서울인기페스티벌'은 18일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에는 뮤지션과 DJ들의 9시간 연속 릴레이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새소년', '불싸조', '이랑' 등 8팀의 밴드와 'Soi 48', 'Happy Colors Seoul' 등 6명의 DJ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험적 축제인 '한강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은 17~19일 독섬한강공원 자벌레 잔디밭에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휴대용 수력발전기 100개로 직접 발전한 '그린영화관'에서는 '비포 더 플러드', '플라스틱 차이나', '자전거 vs 자동차' 등

주민세 균등분 726억 부과 서울시, 이달 말까지 징수

서울시는 이번 달 1일 기준 주민세 균등분 470만건에 대해 72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에는 6000원, 개인사업소에는 6만 25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개인 균등분은 1인 가구 증가로 지난해 396만건에서 398만6000건으로 늘어났다. 개인사업소 균등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됐다. 개인 신규사업소 등으로 지난해 41만 6000건에서 43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김현정 기자

황학정서 어린이 전통무예 프로그램 진행

종로구, 오늘 '활, 활개치다' 운영



어린이 전통무예 체험 프로그램 '활, 활개치다'. /종로구청

서울 종로구는 17일 황학정 내 국궁전 시관에서 어린이 전통무예 체험프로그램인 '활, 활개치다'를 운영한다.
 민속 고유의 전통무예인 국궁과 태극권을 배우며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과 활동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활쏘기 문화 강좌 ▲활과 화살촉 만들기 ▲활쏘기 체험 ▲한복 입기 ▲다례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황학정

국궁전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유통] 이마트 에브리데이 계산대 없앤 '스마트점포' 선배 L1



Life

[스포츠] 2018 아시안게임 D-1 韓, 39종목 출전 6회연속 종합 2위 도전 L6



설겅미로 산뜻한 맛 살리고, 생약재로 영양소도 듬뿍 韓 전통주 자존심 넘어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우뚝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국순당 '백세주'

1992년 세상에 나온 국순당 백세주는 옛 문헌을 참고한 제법과 원료배합 등 수년간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의 산물이다. 당시 몸에 좋은 우리나라 전통주라는 가치를 내건 '백세주'는 한국 주류시장에서 사장(死藏)되었던 전통주를 부활시켜 맥주, 소주로 대별되던 대중주 시장에 전통주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백세주는 2017년까지 26년 동안 약 6억7300만병이 판매됐다. 26년간 판매된 백세주를 한 줄로 이어놓으면 15만5000km(한병의 높이 23cm)로 지구 둘레(4만km)를 3.9배퀴 돌릴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416km)를 186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 백세주는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27개국에 수출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술

백세주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약주는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는 인식으로 애주가들도 전통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인식을 깨고 국순당 백세주는 우리나라 전통주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백세주는 생살을 가루내어 술을 담은 국순당의 특허 기술인 '생살발효법'에 구기자, 오미자, 인삼, 산수유 등의 한약재를 넣어 빚은 제품이다. '생살발효법'은 술이 완성될 때까지 높은 열을 가하지 않고 가루 낸 생살과 상온의 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술로 쌀을 찌서 만든 약주와 달리 영양소 파괴도 적을 뿐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약재는 상극이 없는 12가지의 생약재를 말린 후 가루를 내어 원료로 사용한다. 술을 담글 때 쓰는 한약재의 경우,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단점이 있어 달여 넣지 않고 생약재를 말려서 분쇄해 넣는다. 이런 백세주의 제조법으로 국순당은 1994년 국내 처음으로 KT(국산 신기술인증)마크를 획득했고 1998년에 주류업계 최초의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공급구역제한제도 철폐

백세주가 출시하자마자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다. 불합리한 법규로 인해 특정지역에서만 판매해야 했고, 약주에 대한 선입관과 기존 대형 주류업체와의



국순당 황성 양조장 전경.



국순당 양조장 생산라인.

/국순당

옛 문헌 참고한 제법·원료배합 등 다양한 시도로 전통주 부활시켜

생살발효법에 생약재 넣어 필수 아미노산·비타민 풍부 국내 처음으로 'KT마크' 획득

끊임 없는 제품·레시피 개발 주류 최초 문화상품 인정받아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백세주가 개발될 당시에는 주세법에 '공급구역제한' 제도가 있었다. 특정 지역에서 만든 제품은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순당은 이 규정의 철폐를 위하여 국제청, 청와대, 경제부처 모든 곳에도 건의서를 냈다. 그러나 진전이 없자, 가두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청원을 넣고, 헌법재판소에도가는 헌법소원까지 냈다. 헌법소원의 과정은 근 4년의 시간이 소요됐고, 건의서만 해도 백과사전 네 권 분량이였다. 그 결과 1994년 1월에 약주에 관해서 '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되며 약주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약주에 관한 '공급구역제한' 법이 풀릴 당시 국순당 약주 공장은 지방에 있었다. '공급구역제한'이 풀리면서 백세주가 서울에서도 판매가 가능해 졌다. 그러나 서울의 진입 장벽은 높았다. 시장의 열세, 인지도의 열세, 자본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술을 파는 업체에 직접 과고드는 방법을 찾았다. 영업사원들은 직접 주인이나 업소 종업원들과 친근하게 대화도 하고 일도 도와 주면서 유대감을 형성했다. 손님이 많아 일손이 부족하면 몸 사리지 않고 도왔다. 일대 일로 주인과의 유대감을 형성

하는 일종의 감성 심리 마케팅을 벌였다. 이같은 노력에 1992년 수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시판 2년 만인 1994년에 20억원, 1996년과 97년에는 각각 40억, 70억원으로 매년 100% 가까운 매출신장을 기록하며 전통주 전문업체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후 백세주는 출시한 지 10년여만인 2003년에 1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민약주로 자리잡았고 백세주의 성공에 따라 주류업계에 전통주 개발 붐이 일어 우리나라 전통주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끊임 없는 제품 개발

국순당은 지난 2008년부터 '백세주'를 우리나라 최초의 양조 전용쌀인 '설겅미'를 원료로 빚고 있다. 설겅미는 미세한 구멍이 많아 잘 부서져 양조 가공성이 뛰어나며 단백질 함량이 낮고 유리당과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술 빛기에 적합하고 술 맛이 깔끔하다.

국순당은 설겅미를 지역의 농가와 약속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받고 있다.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국순당은 질 좋은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어 농촌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2015년에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백세주는 1992년 출시 이후 변모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속적으로 100여가지의 레시피 개발과 공정 개선을 진행해 왔다. 2005년에는 알코올도수를 14%로 높이고 투명병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2012년에는 산뜻하고 깔끔한 맛으로 레시피를 수정하고 갈색병의 디자인을 적용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더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백세주'를 선보였다.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백세주 레시

피 중에서 현재의 시장 환경에 가장 적합한 맛과 향을 적용하여 개발했으며 알코올 도수 13%이다. 백세주 병 디자인도 1997년부터 2004년 까지 백세주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시절의 전통적인 느낌을 살린 디자인을 적용했다. 하단부가 잘록한 부드러운 곡선의 반투명병을 적용해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으며 한자로 제품명을 표기하여 전통미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백세주는 HACCP 지정공장인 국순당 강원도 황성 양조장에서 생산된다. 국순당은 지난 2014년 과실주·약주 업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지정받았다.

◆주류 최초 우수문화상품 지정

국민약주 백세주는 지난 2016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 우수문화상품에 주류 최초로 지정되며 단순한 전통주를 넘어 우리나라 문화상품으로 인정받았다. 백세주가 '우수문화상품'으로 선정된 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사라진 우리나라 전통주 문화를 되살리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백세주는 12가지 한약재와 설겅미로 빚은 '백세주', 달지않아 담백한 '백세주담', 프리미엄 제품인 '강장 백세주', 고급 한방주 '자양 백세주' 등 4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대한민국 대표 전통주로 꾸준히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들어 백세주의 인기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산뜻한 맛과 백세주 본연의 풍부한 약재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레시피를 개선했으며, 오랜 기간 사용되며 백세주다운 디자인으로 인식된 부드러운 곡선의 반투명병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백세주다움'을 추구하고 있다.